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16호 【루계 제25825호】 주체106(2017)년 11월 12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네팔인터네트잡지 《네팔 투데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3월16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지난 기간 많은 자동차들을 생산하여 사회주의대건설장들과 인민군대에 보내줌으로써 조국의 부강번영에 거대한 공헌을 한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총조립직장, 종합가공직장, 제관직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자동차산업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강조하시였다.

인디아의 신문 《아시아 카바르 데일리》, 인터네트통신 보이스 오브 밀리언즈, 일본의 교도통신,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인터네트홈페지 《주체-네팔》, 로씨아의 따쓰통신, 인터네트신문 렌따. 루, 인터네트잡지 《렌쉬쉬》, 인터네트홈페지들인 《빠뜨리오띠 모스크바》,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네의 통신,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봉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이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 및 련대성협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창립 70돐을 맞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축하방문하신 소식을 네팔신문 《아르판》이, 그이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아제르바이잔통신 《1뉴스》, 알제리신문 《알 슈르끄》,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인터네트홈페지 《주체-네팔》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이 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김정일동지회고

체스꼬위원회 결성

김정일동지회고 체스꼬위원회가 6일 프라하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인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요제프 쎄르비스따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회고모임, 영화감상회를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에 정중히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풍년든 농장벌을 바라보시는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만풍년》이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 청춘과원으로 훌륭히 전변된 북청군 청리과수농장에 모셔졌다.

신흥지구 혁명전적지 동오골밀영, 두무봉밀영, 뒤력봉밀영에 모셔진 모자이크벽화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과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였으며 인민들을 거족적인 전민항쟁에로 불러일으키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6(1937)년 9월 동오골밀영에서 신흥탄광지구 로동자들과 정치공작원들을 만나시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국내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앙양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두무봉밀영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소부대,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조국해방3대로선을 다시금 천명하시였으며 신흥인민무장대의 훈련도 지도해주신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다.

신흥지구를 거점으로 동해안일대의 여러 지역에 비밀근거지를 튼튼히 꾸리며 전민항쟁준비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는 뒤력봉밀영에도 력력히 새겨져있다.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모자이크벽화를 도안의 여러 단위에 모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갈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흐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어머니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10월 5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김정일, 영원불멸할 당건설업적》, 《조선로동당 인민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다》 등 제목의 글들을 게재하였다.

인디아신문 《어쉐이킹》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사회주의위업, 자주위업수행에서 승리만을 떨쳐가는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가진 당으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비상히 강화발전된 조선로동당은 오늘 혁명의 강위력한 참모부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을 이룩해나가고있다.

김정일령도자의 당건설업적은 후세에 길이 빛날것이다.

레바논신문 《알 비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해오신데 기초하여 해방후 지체없이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신데 대해 찬양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지난 70여년간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온 조선로동당의 자랑스러운 투쟁로정을 구체적으로 전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인터네트신문 《르몰》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여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업적을 격찬하였다.

에질트신문 《알 미쓰리 알아옴》, 기네신문 《호로야》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명도사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과업관철에 총집중하여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군민발전소건설에로 대중을 고무추동

강원도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강원도당위원회에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군민발전소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시, 군당위원회들을 비롯한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이 집중적인 사상공세로 군민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이 군민발전소건설장들에 나가 공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면서 일군들과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원산군민발전소의 연혁소개실화판을 통한 교양사업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도의 전력문제해결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무한한 헌신과 로고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안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주마다 진행하는 화상회의를 통하여 발전소건설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제때에 분석총화하고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들끓는 군민발전소건설장마다에 직관물들과 호소성이 강한 표어들을 전개하고 드세찬 방송선전을 들이대여 공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당위원회와 시, 군당위원회들,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의 일군들이 발전소건설장들에 나가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맡은 공사과제들을 앞당겨 수행하도록 떠밀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일군들과 도안의 직외강연강사들, 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이 군민발전소건설장들에서 진행한 화선식정치사업은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속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도군민발전소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건설장들에 내려가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한편 어려운 모퉁이마다에 위치를 정하고 건설자들과 고락을 나누며 화선의 기관차가 되여 대중을 이끌고있다.

특히 발전소건설이 여러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 맞게 건설지휘부의 당조직에서는 대대들마다 음향설비들과 직관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 건설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시,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이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고성군민발전소와 이천군민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여러 건설장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정치사업의 실효를 높이고있다.

원산시당위원회의 일군들이 갈마동, 중청동을 비롯한 시안의 너냉원들과 함께 고성군민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가 직관선전과 방송선전, 해설선전, 예술선동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화선식정치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온 공사장이 혁명열, 투쟁열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금강, 고성, 세포, 회양, 정강군당위원회들과 문천시당위원회에서도 방송선전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의 포성이 발전소건설장들마다에서 높이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와 시, 군당위원회들,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의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은 그대로 발전소건설성과로 이어지고있다.

고성군민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힘찬 돌격전을 들이대여 방대한 언제가배수로기초굴착공사과제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천군민발전소건설을 맡은 건설자들은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언제와 인기초굴착공사와 콩크리트치기를 동시에 내밀며 완공의 날을 앞당겨가고있다.

희양군민발전소건설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언제가배수로굴착과 물길굴착업쟁굴진에서 전례없는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세포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도 혁신의 새 소식이 련일 전해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공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수만㎥에 달하는 방대한 언제가배수로기초굴착을 끝내고 콩크리트치기에 진입하였다.

도림업관리국대대에서는 압축설비들과 착암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굴진방법을 받아들여 물길굴착업쟁굴진을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강군민발전소건설을 맡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과감한 공격전으로 발전기실기초굴착과 언제가배수로기초굴착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벌려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우리 식의 콩크리트혼합물압송뽐프 개발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건설의 포성을 울린데 따라 앞으로 건설을 많이 해제껴야 하는것만큼 건설설비들과 기공구들을 현대적인것으로 일신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우리 식의 콩크리트혼합물압송뽐프를 개발완성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새로 개발된 콩크리트혼합물압송뽐프는 무게가 5 800kg으로서 최대수직높이 350m, 수평지리 1 600m까지 콩크리트혼합물을 압송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초고층건물건설과 다리건설, 도로건설 등 건설부문에서 리용범위가 넓고 공사의 련속성과 속도를 보장할수 있는 리용가치가 큰 건설설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 5월 인민무력성 기광구, 마감건재품 및 과학기술성과전시회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설비들과 자재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식으로 창안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에서도 인민군군인들의 투쟁기풍, 일본새를 따라배워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에서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콩크리트혼합물압송뽐프를 모방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개발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면서 기술자, 로동자들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련합기업소아래 락원건설기계설계연구소 소장 리성남, 심장들인 김경수, 리철근동무를 비롯한 설계가들은 콩크리트혼합물압송뽐프의 세계적인 개발동향과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수백종에 달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설계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였다.

한편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은 첨단돌파전으로 세계를 앞서나갈 비상한 각오를 안고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감으로써 우리 식의 콩크리트혼합물압송뽐프를 제작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대형조기직장, 유압기구직장, 정밀가공직장, 시린다직장, 열처리직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수십점의 지구장비들과 새로운 가공방법을 창안도입하여 콩크리트혼합물압송뽐프 부속품생산을 다그치고 총조립전투를 진행하였다.

그후 수도의 건설장들에서 여러 단계의 무하시운전을 통하여 설비의 기술적성능을 검증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세계를 앞서나갈 비상한 각오를 안고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우리 식의 콩크리트혼합물압송뽐프를 개발한 긍지와 자랑을 안고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계렬생산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열의를 안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과학연구성과들을 현실에 적극 도입

체육성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서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체육성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이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려는 우리의 미더운 체육선수들의 강한 정신력에 높은 체육과학기술이 안받침되면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돌격대에 망라된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체육연구원, 평양콤퓨터기술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 과학연구기관들의 일군들과 과학자, 교원, 기술자들은 종목별체육기술을 발전시키고 체육의 과학화실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고있다.

올해에만도 체육성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이 연구완성하여 현실에 도입하고있는 연구성과는 수십건이나 된다.

지난 시기 돌격대원들은 여러 종목별교수훈련지원체계를 개발하여 훈련과 경기들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국제경기들에서 우리 선수들이 훌륭한 경기성과를 안아오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미 축구종목에서 온을 내고있는 구기종목에 대한 분석지원체계는 지난 7월부터 배구선수들의 훈련과 경기에 도입되고있다. 돌격대원들은 지금 이 체계를 다른 구기종목들에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진척시키고있다. 또한 돌격대원들은 훈련장에 나가 여러 협회일군들과 감독, 연구사들의 의견을 수시로 종합하여 지난 시기에 개발된 경기분석프로그람들을 더욱 완성시키기 위한 연구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이미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에 도입되였던 력기, 레스링, 활쏘기, 사격, 마라손, 락구, 롱구, 권투 등 여러 종목의 교수훈련 및 경기분석프로그람들이 이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에 의하여 그 분석능력과 정확성이 더욱 개선되고있다.

새롭게 다시 개발된 기계체조, 물에뛰어들기종목들의 교수훈련지원체계는 선수, 감독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당에서 중시하는 종목들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체육종목별특성과 우리 나라 선수들의 체질적특성에 기초하여 가장 효과적인 우리 식의 훈련방법을 탐구해나가는 이들의 비상한 열정은 하나하나가 알심있는 결과로 이어지고있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뚫고나가면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어이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나가고있는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하여 효능이 높은 여러가지 영양제들이 개발되였다. 이것은 선수들의 몸상태조성과 체력단련에 도움을 주고있으며 훈련과 경기의 과학화보장에도 리용되고있다.

이밖에도 돌격대원들은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새로운 체육기자재들을 적극 창안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있으며 이미 있던 체육기자재들을 갱신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우리의 미더운 체육선수들이 안아올린 승리의 금메달들에는 이처럼 체육과학기술경쟁에서 앞서면 승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패자가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누리에 빛내이는 길에서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여 지칠줄 모르는 탐구의 나날을 이어온 돌격대원들의 애국의 땀방울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지금 체육성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현실에 도움이 되는 과학연구성과를 더 많이 이룩하여 체육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겨올 결사의 각오를 안고 연구도입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강효심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빛나게 구현된 공장,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질좋은 화장품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고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의 자욱마다에는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수없이 펼쳐나고있다.

지난 10월 평양화장품공장에 숭고한 인민사랑의 자욱을 수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우리의 눈앞에 선히 안겨온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종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때벗이하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도록 세상이 보란듯이 번듯하게 개건해놓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얼마전 그이의 현지지도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았던 우리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오늘날에도 이 땅우에 인민들의 행복이 어떻게 더욱 활짝 펼쳐나고있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양화장품공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연방 감탄이 터져올랐다. 공장의 건물들과 구내의 그 어느곳이나 몰라보게 변모되였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 절세의 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 산뜻한 공장건물과 구내에 게시된 힘찬 구호들…

정녕 정신이 번쩍 드는 일터였다.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은 뜨거웠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어려와서였다.

지난 10월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며 공장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였다.

지금으로부터 14년전 8월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들을 한상한상 주의깊게 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장군님께서 훌륭히 전변된 공장을 돌아보시였으면 대단히 기뻐하시였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공장에 명도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넘쳐계시던 우리 원수님. 그이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시였던 인민사랑을 더 활짝 펼쳐우실 일념이 꽉 차넘치였다.

자신의 열렬한 심정을 담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장군님의 그날의 현지교시를 언제나 잊지 말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좋은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좋은 화장품!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당부에 실린 숭고한 뜻을 새겨볼수록 《은하수》화장품과 더불어 어려오는 못 잊을 추억이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두해전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옵는 공장일군들은 커다란 감격에 휩싸였다. 우리 원수님의 말씀에 접하는 순간 일군들의 마음은 더더욱 달아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공업부문에 주신 교시를 연구하다가 장군님께서 틀어여 꾸려주신 평양화장품공장의 생산실태를 료해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이 공장에 왔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때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평양화장품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공장으로, 우리 나라 화장품공업의 표준, 본보기공장으로 완전히 일신시키실 결심을 품으시고 몸소 현지를 돌아보시며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생각만 해도 가슴뜨겁다. 공장의 개건형성안은 물론 마크, 상표도안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도해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과 과학기술력량, 자재보장대책까지 몸소 세워주신 그 사랑,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안목을 틔워주시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화장품들도 수많이 보내주신 그 은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세심한 손길아래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 건설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은 종전의 무지에 그전보다 훨씬 큰 생산건물을 일떠세우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윽히 갖추어놓았으며 모든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균화, 무진화를 완벽하게 실현함으로써 공장을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화장품생산기지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통합생산지령실, 화장품직장, 비누직장, 화장품용기직장, 도안창작실, 화장품연구소, 화장품분석소, 과학기술보급실, 제품견본실 등 그 어느곳을 돌아보아도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차넘치던 기쁨과 희열을 가슴후덥게 느낄수 있었다.

피부보호 및 기능성화장품, 분장용화장품, 머리칼화장품, 세척용화장품을 인민들의 기호와 수요에 따라 여러가지로 생산할수 있게 원료배합, 주입, 포장공정을 자동화, 흐름선화하였다고, 화장품용기생산공정에서 쏟지어 나오는 용기들도 하나같이 마음에 든다고 높이 평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이 과학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자체로 제작설치한 현대적설비들, 개별과로장기를 비롯하여 사장되여있던 설비들을 모두 개조하여 생산에 리용할수 있게 한것을 보시고서도 우리 원수님께서는 대단하다고, 자랑할만 한 성과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돌아보시며 제일로 만족해하신것은 무엇이였던가.

우리의 원료와 설비들을 화장품생산에 적극 리용하고있는것을 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우리가 만든 설비들을 볼 때가 기분이 좋다고 우리 원수님 환하게 웃으시였다.

절세의 위인의 그 사랑, 그 은정속에 《은하수》화장품이 우리 인민의 생활속에 더욱 소중히 자리잡고 있는것이다.

우리는 공장의 제품견본실에서 우리 인민의 더 밝은 래일을 확신성있게 그려볼수 있었다.

제품견본실에서 특별히 눈길을 끈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화장품견본자료들이였다.

나라의 천만국사를 돌보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수많은 견본자료들을 품들여 몰라보내주신 우리 원수님,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치료용화장품 등 하나하나의 견본마다에 우리 인민들을 아름답고 문명한 모습으로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손길이 깃들어있었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현실로 펼쳐우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한 이 공장 로동계급의 충정의 산물인 새 제품개발자료를 펼쳐볼수록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현대화, 과학화, 공업화된 공장에서 쏟아져나오는 세계적수준의 화장품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녀성들, 우리 인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오는것만 같았다.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 백을 더 안겨주고싶어하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새겨안고 평양화장품공장은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또다시 비약의 나래를 폈다.

인민들에게 질좋은 화장품을 안겨주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온 공장이 떨쳐나섰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으로 받드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자!》, 《모두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로!》, 《우리의 화장품공업을 세계적수준으로!》…

공장의 생산건물과 구내에 나붙은 힘찬 글발들은 일터에 어려있는 절세의 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길이 빛내여나가려는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보여주고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이 희상의 문명과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의 자욱과 더불어 《은하수》화장품의 그윽한 향기는 날이 갈수록 온 나라에 더욱 차넘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림정호

일터에 새겨진 뜻깊은 화폭

우리의 설비들앞에서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화된 설비들을 보시며 공장의 개건에 이바지한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분장화장품직장에 있는 입상기를 보아주실 때였다. 공장의 일군으로부터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이라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런 설비를 볼 때가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날 공장에 새로 설치한 수많은 현대적인 설비들을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이 과학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자체로 제작설치하였는데 대단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 훌륭하게 만든 설비를 보실 때마다 그렇듯 기쁨을 금치 못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면에서 세계를 압도하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이 어린 훌륭한 창조품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조국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나날이 높아가기에 우리 원수님 그리도 기뻐하신것 아니랴.

다심한 어버이사랑

세척화장품직장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척용화장품들을 생산하는 공정을 돌아보시며 제품들을 유심히 바라보시였다.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삼푸의 용기를 인민들이 쓰기 편리하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더 다양하게 만들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인민을 위한것이라면 그 어느 하나도 무심히 보지 않으시고 끝없는 사색을 펼쳐가시는 우리 원수님,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하나의 제품을 놓고서도 항상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높은 세계에 언제면 자신들을 따라세우랴 하는 생각에서였다.

인민을 위해 일을 더 잘해나갈 명세를 다지는 일군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이런 격정의 웨침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다심하고 사려깊으신 인민의 어버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못내 기뻐하시며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생산공정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화장품용기생산공정에서 쏟지어 나오는 용기들도 하나같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였고 새로 개발한 화장품들을 보아주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제품견본실에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가지 화장품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면서 시종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화장품세트를 손수 들어보기도 하시고 어떤 화장품은 그것을 리용할 녀성들의 밝은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오래도록 눈여겨보시였다. 그렇게 그이의 손길이 닿은 갖가지 화장품들과 화장품용기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여러가지 살결물과 머리크림, 물크림, 분크림, 삼푸, 세수비누…

정녕 그 하나하나에 우리 인민들을 위해 온갖 심혈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깊은 사랑이 어려있고 《은하수》상표가 붙은 화장품을 으뜸가는 명상품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기울이신 그이의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하기에 그것을 어찌 단순한 화장품이라고만 하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이 이 세상 가장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의 고귀한 결정체인것이다.

본사기자 최유임

언제나 영광의 그날을 안고 살리

지금 우리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에 찾아오시여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가슴 불태우면서 우리 나라의 화장품공업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품을 들여 마련해주신 귀중한 밑천들이 은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두차례나 모신 크나큰 영광을 지닌데 대하여 부러워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시려 얼마나 뜨거운 인민사랑의 자욱을 수놓아가시는가를 격정속에 이야기해주군 한다.

이번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화된 공장의 어려곳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나라 화장품산업의 중심으로 전변되였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화장품공장이 생산구역, 교양구역, 생활구역이 명백히 구분되고 모든 건축물들이 록색형, 에네르기절약형으로 꾸려졌으며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종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때벗이하였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우리 공장일군들은 가슴뜨거워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 공장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계시며 어버이의 심정으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대화된 공장을 보시며 그처럼 기뻐하시니 2년전 우리 공장을 찾으신 그날에 하시던 말씀이 어려와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자신께서 도와주겠으니 평양화장품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공장, 만점짜리 공장, 우리 나라 화장품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완전히 일신시키자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공장의 현대화정형을 자주 보고받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였으며 많은 견본품들도 보내주시였다.

진정 하나를 해주시면 무엇을 더 해주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많이도 쓰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는 다심한 손길에서 우리는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을 위해 그이께서 바쳐가시는 헌신과 로고를 폐부로 절감하였다.

우리가 해놓은 일이 있다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조금이나마 받들어갈 일념으로 애쓴것뿐이다. 그런데도 모든 성과를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니 한없는 격정과 고마움으로 목이 꽉 메여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사람들의 기호와 특성, 다양한 취미에 맞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화장품과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여러가지 종류의 화장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2단계 생산공정현대화과업을 주시였다.

우리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기어이 결사관철함으로써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더 활짝 펼쳐나가겠다.

평양화장품공장 지배인 김현

공장에 깃들어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김영남동지가

증산군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을 돌아보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증산군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을 돌아보았다.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증산군에서는 모체양묘장을 자체의 힘으로 잘 꾸린데 맞게 나무모재배와 양묘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는데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김영남동지는 통합생산지령실, 과학기술보급실을 비롯한 모체양묘장의 어려곳을 돌아보면서 수종이 좋고 경제적리용가치가 큰 나무모들을 재배하고 수십정보의 방풍림, 땔나무림을 조성하고있는 이곳 종업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그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가릴수도 막을수도 없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혈연의 정이다.

그 순결하고 열렬한 정의 세계를 보여주는 가슴뜨거운 화폭들은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혁명의 붉은 기폭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주체102(2013)년 6월 어느날 창성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창성식료공장을 찾아주시였다.

공장의 어려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민위천은 장군님의 한생의 좌우명이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이였다.

이날 대성산유희장의 설계를 맡은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의 집무실로 향하였다. 그들의 손에는 설계도면들과 함께 유희기구들을 찍은 사진첩, 유희기구에 대한 설명문이 들려있었다.

대성산지구에 인민을 위한 훌륭한 유희장을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받들고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면서 완성한것이기에 일군들은 설계가 반드시 장군님께 만족을 드릴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일군들을 반겨맞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설계도면부터 보아주시였다.

도면이 번져질 때마다 일군들은 유희기구들의 구조와 작용원리, 수용능력과 설치할 위치 등을 설명하여드리였다.

도면을 다 보아주신데 이어 유희기구들이 찍혀진 사진첩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관성렬차선로의 길이가 얼마인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에서 제일 긴것은 얼마인가고 재차 물으시였다.

이에 대하여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자신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큰 유희기구를 만들어줄 구상을 하여왔다고 하시면서 이왕이면 관성렬차의 선로를 좀 더 길게 하자고 이르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 일군들이 어느 한 나라의 유희공원을 찾았을 때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선로를 가진 관성렬차가 있었다.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것이였다.

그 관성렬차를 바라보는 일군들의 마음속에는 저런 관성렬차를 평양에도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깔마들었다. 그래서 대성산유희장에 놓을 관성렬차의 선로길이를 그 관성렬차와 같이 정하게 되였다.

결국 세계적수준이기는 하였지만 우리 인민들에게 최상의것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의도에는 미처 따라서지 못하였던것이다.

희상의것!

바로 이것이 인민을 위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유일한 기준이였다.

본사기자 강원남

혈연의 정으로 뭉친 단결

그이의 주위를 에워쌌던 어느 한 공장의 로동자들, 그들속에서 환히 웃으시며 로동자들의 무람없는 행동도 너그러이 받아주신 우리 원수님 아니시였던가.

사회주의선경마을이 솟아난 라선땅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신 뻐스를 따라 달리며 《만세!》의 우렁찬 환호를 올리던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히 안겨온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을 운명의 어버이로 믿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은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이 세상 가장 진실하고 열렬한것이기에 우리 원수님 가시는 곳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감격의 화폭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는것이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우리의 혼연일체야말로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조선의 궁지높은 모습, 조선의 무한대한 힘의 원천인것이다.

본사기자 김일권

인민을 위한 유일한 기준

김영남동지가

앙골라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루안다

앙골라공화국 대통령

쥬아웅 마누엘 곤쌀베스 로우렌쑤각하

나는 앙골라독립 42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긴밀한 친선협조관계가 호상리익에 맞게 계속 확대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앙골라인민에게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6(2017)년 11월 11일 평양

과학연구와 생산이 일치된 우리 나라 화장품공장의 전형단위, 표준

평 양 화 장 품 공 장 을 돌 아 보 고

비상한 창조정신이 안아온 눈부신 전변

우리는 지금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신된 평양화장품공장의 구내길을 걷는다.

우리 인민들에게 질좋은 화장품을 안겨주시려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거룩한 발자취가 력력히 새겨진 현지지도로정을 따라걷는 우리의 마음은 그이를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에로 달리고있다.

통합생산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구축된 지령실이며 생산공정과 환경의 무균화, 무진화가 완벽하게 실현되여 GMP의 요구수준에 도달한 작업현장들, 현대적인 분석 및 측정, 실험설비들이 갖추어진 화장품연구소와 화장품분석소, 수경재배기술, 태양빛발전체계가 도입된 록색형, 에네르기절약형의 건축물들, 아담하게 꾸려진 도안창작실들.

돌아볼수록 첨단에로 비약하는 우리의 화장품공업의 보다 밝은 미래가 안겨오고 그날에 지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미소가 눈앞에 어려오는것만 같다.

그 어디를 가보아도 자기 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뿌듯이 느껴지는 이 벅찬 현실은 어떻게 이루어진것이며 과연 무슨 힘으로 이렇듯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였는가.

우리는 오늘 자기들의 일터를 우리 나라 화장품공장의 전형단위,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세운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 전체 현대화공사참가자들의 투쟁성과속에서 이들이 지닌 비상한 창조정신, 굴함없는 공격정신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나라의 전반적경공업을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활력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기본열쇠입니다.》

두해전 2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자욱이 아로새겨져있는 이 공장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꾸려주신 평양화장품공장의 생산실태를 료해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이 공장에 왔다고 하시는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머금었다.

화장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 우리 인민들이 다른 나라의것이 아니라 《은하수》상표를 단 우리의 화장품을 먼저 찾게 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간곡한 가르치심은 모든 종업원들을 공장의 비약적발전을 위한 투쟁에로 추동하는 무한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평양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이 사용하는 자그마한 화장품 하나에도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어 자기들의 일터를 인민의 사랑을 받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으로 되게 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현지지도파업관철을 위한 단계별목표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그 실행을 위한 준비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의 개시와 함께 시작된 공장개건공사는 그야말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격전이였다.

평양시당위원회의 빈틈없는 조직사업밑에 시안의 30여개의 공장, 기업소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달려오고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시공력량이 투입된 개건전투장은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로 끓어가니마냥 끓어번졌다.

공사장곳곳에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선전, 화선선동활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혁명의 전진가, 사회주의전진가가 높이 울려퍼지는 속에 공장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갔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주인인 자신들이 현대화사업에서도 앞장서야 한다는 자각을 가다듬으며 언제나 두툼, 세툼 일감을 제꺼나갔다.

일군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생산만은 중단할수 없다는 확고한 립장을 지니고 제품생산과 건설을 동시에 벌릴수 있는 립체적인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었다.

세수비누생산은 개건되는 건물안에서, 또 어떤 공정은 가설작업장을 마련하고 공업용수와 동력보장을 해가며 구체적실정에 맞게 생산을 능동적으로 밀고나갔다.

개건공사가 벌어지는 속에서 생산을 중단없이 내민다는것은 녀성종업원들이 대다수인 공장의 실정에서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였다.

그러나 훌륭히 개건된 자기들의 일터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다시 모시는 영광의 그날 높은 화장품생산실적보고도 함께 드릴 불같은 충정의 마음을 안고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에 총정의 20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안아왔다.

그 시각 한복에서는 치렬한 두뇌전, 맹렬한 첨단돌파전이 분초를 다투며 벌어졌다.

공장기술자들과의 긴밀한 협동밑에 이곳에 파견된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세계적인 화장품발전추세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우리 식의 화장품분류체계와 시험방법을 짧은 기간에 완성하여 당에 충정의 보고를 드리였다.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적대세력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제재책동에 맞구멍을 낼 불같은 열의밑에 이들은 화장품생산에 리용되는 많은 원료, 자재를 국내에서 해결할수 있는 카치있는 연구성과를 내놓았으며 개건기간에만도 100여점의 새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전진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는 자신만만한 배짱을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설치한 현대적인 설비들중 84%에 달하는 137종에 814대는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이 과학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자체로 제작설치하였는데 대단하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 설비들가운데는 자동화된 분크림생산설비도 있다.

평양기계종합대학의 연구사들이 처음 이 설비제작과제를 맡아안았을 때 제일 애를 먹은것이 마개공급로보트들에 마개를 공급해주는 정렬기문제였다고 한다. 소음이 세고 질이 낮은 수입설비의 결함을 분석한 이들은 남의 식이 아닌 개발창조형으로 설계를 완성할것을 결심하고 피타는 사색과 탐구의 나날을 보냈다.

그 어떤 기술자료나 참고도면도 없이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만든다는것은 쉽지 않았다. 두께가 얇은 속마개가 소기의 목적대로 정렬되지 않아 운영시험에서 련이어 실패를 거듭하군 하였다.

우리 힘으로 안된다면, 지금 조건에서 못하겠다고 나앉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당원의 자격, 기술자의 자격이 있겠는가.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탕이 준 과업을 결사관철하자.

제힘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내려는 이런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이들은 물러선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고 끝까지 달라붙었다.

정렬기의 핵심부분품인 프로필에 대한 설계와 콤퓨터모의가 수십번이나 진행되는 속에 분크림생산설비는 드디여 성공의 날을 보게 되였으며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게 되였다.

우리는 여기에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로 공장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한 현관단위 공장, 기업소, 여러 대학들과 연구기관일군,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투쟁위훈을 다 전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이 바친 사색과 탐구의 낮과 밤, 헌신의 땀방울들이 그대로 어려있는 하나하나의 창조품마다에서 세차게 맥박치는 자력자강의 창조정신을 뜨겁게 느낀다.

※ ※

새로운 신심과 열정에 넘쳐 평양화장품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또다시 출발선에 나섰다. 본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공장을 일신시킨 자랑도 크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 성과는 결코 결승선이 아니다.

창조의 노력은 더 백배해져야 하며 혁신의 속도는 더 빨라져야 한다.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으로 내달려야 할 격동의 시대에 위훈의 창조자로 살지 못한다면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한다고 말할수 없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 더 높은 목표밑에 보다 휘황한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본사기자 심학철

더 곱고 리용에 편리하게

제품견본실에 들어선 우리에게 동행한 일군은 지난 2년동안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화장품의 종류가 수십종에 달한다고 하면서 이 성과속에는 도안창작실 창작가들의 숨은 노력도 깃들어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산업미술을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포장용기와 상표도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에 따라 공장의 공업시험소가 화장품연구소로 승격되고 도안창작실이 새로 조직되였다.

그 어느 소비품이나 다 그러하지만 특히 화장품은 녀성들의 필수품인것으로 하여 질은 물론 리용의 편리성과 함께 종류와 용기의 모양, 상표, 포장곽에 대한 구매자들의 요구수준도 아주 높다.

처음 도안창작을 시작하면서 이곳 창작가들은 모두가 남성들이다보니 이러한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아 무척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긴 이들은 분발하여 화장품이 눈에 확 안겨오면서도 리용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도안창작에 피타는 사색과 열정을 바쳐갔다.

그들은 화장품연구소의 연구사, 생산자들과 지혜를 합치고 과학기술보급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화장품생산의 발전추세와 과학기술적내용들을 터득해나갔다. 그리고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을 비롯한 시안의 전문산업미술창작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최신산업미술리론들과 정보들을 습득하고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화장품견본들과 자료집을 보면서 안목도 더욱 넓히였다.

공장의 종업원들속에서도 화장품도안과 관련한 현상응모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여 좋은 착상들이 제기되였다.

화장품포장곽밑에 공장제품을 상징하는 8개의 은색장식줄이 새겨진것도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현상응모사업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창작된것이다.

이렇게 창작된 하나하나의 도안들이 제품으로 실현되여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을 때마다 이들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내달렸다.

지난 10월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화장품들이 가지수도 많고 질도 좋을뿐아니라 용기의 모양은 물론 포장곽들도 참 곱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지금 이곳 창작가들은 우리 사람들의 기호와 특성, 취미에 맞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화장품과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여러가지 종류의 화장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훌륭한 화장품도안을 창작하기 위한 투쟁의 날과 날을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기술집약형산업의 본보기공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식경제의 하부구조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모든 부문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과 기술,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과 기술관리공정을 개발창조형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현시대는 지식경제시대이며 오늘날 기업전략작성의 기본방향과 목표는 높은 과학기술력에 기초한 집약적발전에로 지향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과학기술이 생산을 안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여있었다면 이제는 생산규모와 질을 결정하는 가장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화장품연구소와 화장품분석소에 철저히 의거하는 공장의 경영관리방식은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치된 선진적인 기술집약형산업의 본보기라고 자랑스럽게 말할수 있다.

먼저 공장의 경영활동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화장품연구소의 역할에 대해 보기로 하자.

이곳 연구소에서는 새 제품개발과 제품의 질을 높이고 원료, 자재를 국내에서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전문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 새로 개발되거나 질적수준이 높아진 제품들의 합리적인 배합비와 표준조작법은 곧 기술과로 넘어가며 생산에 도입되게 된다.

기술과에서는 이 자료들을 공장에 구축된 통합생산체계에 입력시킨다.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하고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구축된 통합생산체계는 받아들인 기술적요구조건들이 생산공정들에서 정확히 지켜지는가를 실시간으로 장악통제하며 제품의 질을 확고히 담보해간다.

여기서 화장품분석소가 맡은 몫이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생산은 분석으로 시작하여 분석으로 끝난다고 볼수 있다. 새 제품개발에 들어가는 원료로부터 시작하여 출하되는 제품에 이르기까지 생산의 모든 요소들에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화장품의 모든 성분들은 피부에 스며들어 살결의 색갈을 아름답게 하고 탄력성과 부드러움을 주며 생기가 넘치게 한다. 그러므로 분석공정이 가지는 의의는 중요하다.

현지지도의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내온 화장품연구소와 화장품분석소에 현대적인 분석 및 측정, 실험설비들을 갖추어놓고 화장품과 원료들의 정성, 정량분석, 유해물질검출, 작용효과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수 있게 하였다고, 로화방지크림, 미백살결물, 여드름치료크림, 머리칼고착제 등을 새로 연구개발하였는데 평양화장품공장은 과학연구와 생산이 일치된 기술집약형산업의 본보기공장, 우리 나라 화장품산업의 중심으로 전변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지금 이곳 분석소에서는 현대적인 분석설비, 측정설비들을 차려놓고 자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화장품들과 대비분석하여보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호평받는 《은하수》제품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필수품,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세계적인 화장품발전추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밑에 우리 인민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는 천연적이고 저자극적이며 기능적인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치료용화장품

이번에 공장에서는 사람들의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있게 해주는 여러가지 치료용화장품들을 생산하여 내놓았다.

보건성 피부병예방원의 박은철, 신광옥동무들이 개발한 여드름치료겔과 크림을 실례로 들수 있다.

여드름은 사춘기청소년들속에서 나타나는 모낭피지선계 염증성질병이다. 이전에는 여드름치료에 여러가지 약물을 사용하였는데 이 기간에는 화장을 하지 말아야 했다.

이번에 개발된 치료겔과 크림은 여드름이 나온 부위에 1~3회만 바르면 일반적인 여드름은 완전히 없앨수 있다. 여드름이 잘 나는 사람들은 그후에 여드름방지살결물을 바르는 방법으로 이 병을 예방할수 있다. 늘 얼굴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호할수 있게 하는 이 여드름치료겔과 크림은 지금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이 대단하다.

이밖에도 공장에서는 원형탈모를 방지하는 머리칼성장액과 비듬방지샴푸, 린스를 비롯한 인기있는 치료용화장품들을 만들어 내놓았다.

분장용화장품

공장에서는 녀성들이 많이 찾는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입술연지와 분크림을 비롯하여 다종다양한 분장용화장품들을 생산해내고있다.

분체의 나노화를 실현하고 표면처리기술을 받아들여 개발한 분장용화장품들은 부착력이 높고 자연스러운 화장효과를 낸다. 또한 화장지속성이 좋으며 땀이나 물에 의해 얼룩이 가는 현상이 없다.

처음으로 개발된 용기줄형머리칼고착제도 인기가 대단하다.

종전에 생산되던 고착제는 사용환경에 따라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결함을 가지고있었다.

이번에 새로 꾸려진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이 공기줄형머리칼고착제는 환경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것이 우점이다.

이 고착제를 리용하면 사무를 볼 때나 운동을 할 때 그리고 현만한 눈비에서도 머리카락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주는것으로 하여 수요가 높다.

본사기자

능력이 큰 화장품용기생산공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세워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화장품은 용기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결정된다.

아무리 질좋은 화장품을 생산했다 하여도 용기의 모양과 색, 질이 그에 따라서지 못한다면 날로 높아지는 우리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를 보장할수 없다.

다양하고 빛갈고운 용기들에 담겨진 질좋은 화장품일수록 그 수요와 인기는 더욱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번에 공장에는 능력이 큰 화장품용기직장이 새로 꾸려져 다종다양한 우리의 화장품용기들을 쟁쟁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사출작업반만 놓고보아도 수십가지나 되는 형태들을 리용하여 각이한 형태와 색갈을 가진 수지용기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고있다.

현대적인 도장기와 진공증착기도 새로 받아들여 용기들의 장식적효과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이렇게 생산된 수지용기들은 접착상표를 붙이거나 프린, 청면인쇄기에 의해 상표가 인쇄되여 화장품생산공정으로 넘어간다.

용기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유리용기를 첫빛으로 처리하는 공정도 꾸려놓았다.

제관, 마개부분사출, 도안인쇄, 상표찍기, 마개막이에 이르기까지 전생산공정이 흐름식으로 꾸려진 쥬브작업반에서는 크기와 모양이 각이한 쥬브식으로 된 화장품용기들도 마음먹은대로 생산할수 있다.

지금 직장안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려는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당의 부름따라 공격전 앞으로!

시 초

백두대산줄기에 지맥을 잇고
기적의 메부리로 솟아
격전의 전구들을 승리에로 부르는
검덕의 산발이여 물어보자
네 품어안은 시대의 영웅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 땅의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석수쏟아지는 너의 천길지심에서
불굴하는 조선의 위용을 높이 떠
받들며
영웅적진군의 앞장에서 나아가
나니

오, 불러다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땅밑에서 억척으로 열어가는
금골영웅들의 심장의 노래
로동계급의 자랑찬 송가
검덕의 노래를

해

3년분 계획완수의 마지막광차를
갱밖으로 바래우는 격정의 순간
뭇 진디게 가슴에 젖어오누나
기적에로 우리를 떠밀어준
어버이의 정깊은 그 글발이

푸른 하늘 맑은 공기 갱밖에 두고
사계절 땅속 깊은 곳에 살아도
눈부신 해빛을 언제나 안고 사나니
지하막장 암벽을 정히 다듬어
밝게 모신 원수님의 축하전문

고경찬영웅소대 전투원들과
전체 광산로동계급이
모두 건강한 몸으로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지닐것을 기대한다고
몸소 보내주신 사랑의 글발이여

아, 정깊은 그 음성 들려오고
산같은 그 믿음 실려오는
어버이의 이 글발이
우리의 밤은 해빛이다
가없는 푸른 하늘이다
무한한 우리 삶의 세계다

한층 또 한층

빛

주 명 옥

우리 내려가는 지심은 깊어져도
이 해빛에 휩싸여 눈부시게 빛
나는
광부의 삶은 가장 복된 삶
몸은 비록 수천길 땅속에 있어도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생의 절정에
산다

위대한 그이의 크나큰 심장에
심장을 맞대인
우리는 나라의 딸아들
사랑의 축하전문
그 글발이 내뿜는 벅찬 숨결로
시대를 뜨겁게 호흡한다

오, 자연의 빛과 공기와는
섭사 떨어져 살수 있어도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우리 원수님의 뜻과 정이여
영원한 우리 운명의 빛발이여

그 해빛을 무한대한 힘으로 안고
더 큰 기적을 우리 펼쳐가리니
땅속 제일 깊은 곳에 있어도
태양의 제일 가까이에 사는 광부
의 삶
영웅의 금별로 빛을 뿌려라

금 골 의 보 화

서 진 명

《4.5갱》
《7.1갱》
우리 수령님들 다녀가신 영광의
날들이
갱구마다 금분자로 새겨져 빛나는
검덕, 그 이름은 금골로 빛나고
인민의 보화를 안아올리는
광부들의 삶도 새로 태어났노라

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고
수령님 부여주신 축배잔을 받아안은
그 영웅광부가 나의 할아버지였노라
검덕역에 꽃다발을 안고 달려가
수령님께 삼가 드린
그 혁신자최녀가 나의 어머니였노라

보화가 귀중해 쫓고 또 쫓으셨던가
금골의 주인들 광부들이 귀중해
인차까지 타고 막장에 오신 장군님
해마다 이맘때면 꼭 오셨다 하시던
그 약속을 금골은 소중히 안고 산다

수령님들 태워주신 전리마에 올라
우리 부모들 날으던 시대의 창공으로
오늘은 우리가 만리마라고 날은다
충진군대오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원수님 그 믿음에 높이도 떠받들려
시대의 거인들을 자래우는 피줄기여라
그 믿음은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무한한 힘
우리의 가슴속에 억척으로 뿌리내려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는 신념
의 기둥

재부가 가득하여 유명한 금골인가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할아버지, 아버지세대가 물려준 충
정의 전통
금골의 제일보화로 귀중히 안고 사는
우리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
계급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충정과 의리로 하여
그 이름도 빛나는 고장
땅밑에서 조국을 하늘높이 받들며
이 목숨같은 전통을 금골은 지켜
간다
오, 대를 이어 세대를 이어

영 웅 소 대 사 람 들

최 원 찬

무엇이 남다르랴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모습들
허나 이들이 착암기를 잡으면
검덕의 산악이 통채로 울리고
이들이 발파심지에 불을 달면
기적의 열풍이 온 나라에 터져오
른다

쉴참에도 소대장은 채광장을 돌아
보며
통채로 떨구어낼 광맥과 이야기한다
-100m이냐? 200m이냐? 많을
수록 좋다!
영웅다운 그의 일욕심과 배짱은
벌써 암벽을 쩍- 가르며
쏟아낼 광석의 무게를 안아본다

이번에도 푸슨 엉뚱한 궁냥이 없
느냐고
소대의 제대군인《발명가》에게
공훈광부아바이 은근히도 부채질
한다
아니나다를가 힘을 합쳐 개조한 착
암대차
소대의 하루작업량을
쭝- 절반시간에 허물어냈다

해놓은 일을 두고 누구나 놀라도
더 높은 목표만을 향해 가는 사람들
언제나 말이 없고 제 자랑 몰라도
난관앞에 마주서면 알게 되더라
영웅들의 심장이 얼마나 큰가를!

쉴참에 부르는 노래속에도
원수님 그리움에 눈금이 젖어
정양의 하늘가로 달리는 마음
동발도 지압에 허리굽히는 막장에서
그 그리움을 안고
한생을 하루같이 사는 의리의 인
간들

사람은 날날이여도 심장은 하나여라
열다섯이 한덩어리되어
핵융합과 같은 거대한 위력을 떨
쳐가는
대중적영웅주의의 불굴의 화신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내 나라는 끄
떡없거니
우리 수령님들 품에 안아 키워주신
금골의 영웅소대
우리 원수님과 류다른 인연맺은
고경찬영웅소대

자나깨나 당중앙을 향한 일편단심
백옥같은 그 마음들이
5개년전략수행의 높은 령마루로
질풍친다
대비약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키며
온 나라에 증산의 불길 지펴간다
오, 만리마시대의 제1기수들이여

금골의 아름다운 녀인들

전 설 경

남편들을 도와 작업복 벗을새 없던
금골의 녀인들
화려한 치마저고리 떨쳐입었구나
원수님 마련해주신 화선공연을 보러
불밤은 극장에 선녀되여 내렸구나

광부! 어엿한 그 모습에 마음끌려
도시와 어촌마을, 과일고장
정든 고향을 떠나온 녀인들
만사람이 아껴 내놓은 알자리에
영웅남편들과 원앙새처럼 앉았구나

북방의 산악처럼 늘 기세찼던 녀
인들
암벽을 뚫는 정말처럼 담찼던 녀인들
오늘은 울고웃으며 따라부르누나
함남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주는
심장의 노래들을

광석밭에 모르는 사나이들을 받들어
사랑을 바쳐온 헐치 않은 그 나날
저 노래를 부르며 달려오지 않았
던가
아침저녁 붉은기 흔들어
갱으로 들어가는 남정들의 발걸음에
증산돌격의 나래를 달아주며
자기 집 추녀를 갱구와 이어놓고
땀에 젖어 안고 들어서던 후방풀
자들은
남강마을녀성들이 이고 오르던
불타는 고지의 탄약상자가 아니였던가

막장길을 밝히는 안전등이 되어주고
광차를 받드는 메부가 되어준 녀인들
금골이 사랑하는 녀광부들이다
온 소대가 정을 담아 불러주는
《우리 선동원》들이다
아, 우리 원수님
사랑담아 보내주신 축하전문에
뜨겁게 불러주신 《가족소대원들》
언제나 남편들의 뒤에 서있었건만
영웅소대원들과 나란히 불러 내세
워주신
행복의 이 자리, 영광의 단상이여

오, 금골에 인생의 뿌리를 박고
행복도 보람도 눈물도 쏟아온
아름다운 녀인들
원수님 사랑에 떠받들려
온 나라가 부러울게 웃고있구나
보화의 산, 로은산의 보름달처럼

영웅인민이여 앞으로!

최 정 용

뚫어도 뚫어도
진함없는 정일의 노래인가
위대한 조국에
보화의 산악을 드리며
더 세차게 쏟아지는 광물폭포

3년분 계획을 단숨에 돌파한
불굴의 용사들
또다시 가슴을 두드리며 나섰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로
더 큰 기적의 봉우리를 향하여
깊이 더 깊이 천길땅속으로 내려
선다

가증한 원쑤의 봉쇄장벽이 헐리면
우리는 땅속길 만리를 뚫자
제재와 압살을 짓어대는
원쑤들의 썩은 넉두리
통쾌하게 터치는 발파에 통구멍난다
만부하를 웨치는 압축기소리, 권양
기소리…
배부른 광차를 잡아채며
전차는 정길에 번개를 긋고
콘베아는 북천을 날아넘어
쉬임없이 쏟는다 선광장에
광물폭포를

우리의 피더운 숨결을 안고
자력자강의 빛을 뿜는 이 광석
당중앙을 옹위하는 억척의 성돌이다
원쑤들에게 퍼붓는 검덕의 화탄이다

보화의 장한 메부리
금산을 딛고선 이 가슴엔 호뭇이
어려온다
필필이 행복의 비단을 짜는 직기
의 바다
통음높이 울리는 무쇠철마의 대
군단
악의 제국 미국땅덩어리를
단숨에 불마당질할 장쾌한 《화성》
의 숲이

검덕의 증산열풍은 온 나라를 들
끓여
황금벌의 금나락으로 파도치고
황금해에 풍어기로 나붓긴다
기적과 번혁이 나래치는 이 강산에
행복의 웃음소리 높이 울려퍼진다

자력자강의 창조대전 우뢰소리로
하늘땅을 진감하는 진실의 나라
이 땅에서 시대의 영웅을 따로 찾
지 말라
이 나라 천만군민모두가
금골의 영웅소대-만리마기수들!

승리의 언덕에서
더 큰 승리에로 돌진하는 금골
오, 검덕은 온 나라를 부른다
소리높이 웨친다

팔을 끼고 어깨겯고
당중앙무리에 강철로 뭉치자
우리 원수님 가리키신
찬란한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공격전 앞으로!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기상 떨치며
영웅인민이여 앞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취임후 처음으로 아시아행각에 나선 트럼프가 지난 5일부터 우리 주변을 돌아치고있다.

트럼프의 이번 우리 주변행각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을 빼앗아내려는 호전광의 대결행각이며 손아래 《동맹국》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여 미국군수독점체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전쟁상인의 장사행각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이번 행각기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로서의 진면모를 낱낱이 드러내놓았으며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을 구걸하였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트럼프가 지난 9월 유엔총회마당에서 우리 공화국의 절멸이라는 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댄데 이어 이번에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전면거부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국가를 《악마화》하여 우리 정부와 인민을 갈라놓고 조선과 국제사회를 대치시켜보려고 뛰친것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요, 미국은 《힘으로 정화를 지키겠다.》고 떠들어댔는데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지키려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립장이다.

미국이 1950년대 조선전쟁에서 당한 쓰디쓴 참패와 무장간섭선 《루에불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등 년대와 년대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의 력사적교훈은 누가 누구를 과소평가하거나 시험해보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가르쳐주고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한것은 미국의 가중되는 핵위협공갈과 대조선적대시책동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하고 불가피한 자위적 선택이다.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트럼프와 같은 늙다리미치광이의 망발은 결코 우리를 놀래우거나 멈춰세우지 못하며 반대로 우리가 선택한 병진의 길이 천만번 옳다는것을 확인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핵무력건설대업 완성에로 더 빨리 질주해나가도록 떠밀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무진막강한 군력이 있기에 우리는 배심든든하며 악의 제국 미국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주체106(2017)년 11월 11일
평 양

탄전을 받드는 뿌리가 되여

덕 성 탄 광 에 서

지난 10월에도 덕성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맡겨진 월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다. 특히 5갱 채탄1중대와 3갱 채탄1중대, 2갱 채탄1중대에서는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러한 성과속에는 탄부들의 후방사업을 위해 아글타글 애써온 탄광 축산기지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해전 겨울 어느날 탄광사무실을 나서는 한녀성이 있었다. 그가 바로 박필옥동무였다. 그날 탄광당조직에서는 그에게 축산기지를 책임지고 일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었던것이다. 하지만 박필옥동무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다. 말이 축산기지이지 짐짐승이라고는 몇마리의 종자돼지와 새끼돼지가 전부였다. 그러는 그에게는 문득 탄광일군이 방금전에 한 말이 떠올랐다.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당의 뜻을 언제나 잊지 맙시다.》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 이 말을 곱씹는 그에게는 후방사업 역시 석탄을 캐내는 일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가슴속깊이 파고들었다.

당조직과 집단의 믿음에 기어이 보답하리라 마음다진 그는 그 다음날로 가정에 저축해두었던 많은 짐짐승먹이를 내왔다. 그리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였다.

그때 박필옥동무와 종업원들이 제일먼저 시작한 일은 수도관공사였다. 당시 축산기지에는 물보장조건이 제대로 되여있지 않아 관리운영에 필요한 물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길어다 쓰군 하였다.

대부분이 녀성들인 몇명 안되는 그력으로 수도관공사를 진행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하루빨리 고기와 알생산을 늘여 탄부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자고 하면서 늘 앞제를 메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박필옥동무의 헌신적인 일본새는 종업원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의 뒤를 종업원들모두가 따라섰다. 하여 그들은 어렵게만 생각했던 수도관공사를 보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끝내였다. 박필옥동무와 종업원들은 물을 늦추지 않고 축산기지개건공사도 통이 크게 벌려 2층으로 된 종합축산건물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날이 갈수록 커가는 집단의 단합된 힘을 다시금 절감한 종업원들은 짐짐승먹이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것을 결심하고 부업지농사에 달라붙었다. 낮에는 무더위속에서 농사를 짓고 밤에는 밤대로 짐짐승들을 관리하느라 입술이 부르트고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였지만 박필옥동무는 종업원들과 짬시간마다 수의학과 관련한 도서들을 탐독하였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에게 힘을 준것은 탄광일군들이였다. 축산기지를 찾을 때마다 일군들은 후방사업을 잘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린 단위들의 성과를 이야기해주면서 박필옥동무와 종업원들에게 새힘을 북돋아주군 하였다.

그 나날 박필옥동무와 종업원들이 종자짐짐승을 구하기 위해 걸은 길은 얼마이고 짐짐승들을 관리하느라 지새운 밤은 또 얼마이던가.

중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는 그날에도 박필옥동무는 일터를 뜨지 않았다.

이렇게 애써 노력한 보람이 있어 그들은 부업지에서 해마다 많은 짐짐승먹이를 거두어들이게 되였으며 축산기지에서는 돼지와 염소, 닭, 오리를 비롯한 수백마리의 짐짐승을 길러 고기와 알생산을 늘이였다. 그것은 그대로 탄부들의 웃음넘치는 풍성한 식탁으로, 석탄증산으로 이어지게 되였다.

하기에 오늘 탄광의 영양제식당과 축산기지를 돌아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군 한다.

후방사업이야말로 탄부들을 위훈에로 부르는 힘있고 말없는 정치사업이라고.

오늘도 박필옥동무와 종업원들은 탄전을 떠받드는 여섯 뿌리가 되여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홍 성 철

제힘을 믿고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할 때

평양전기기구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최근년간 평양전기기구공장에서는 고압단계에 도입할수 있는 정전측전기를 개발하고 자동력률보상반을 비롯한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설비, 부속품들도 생산하여 나라에 큰 리익을 주고있다.

이 성과속에는 자기 힘을 믿고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가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2년전 고압정전측전기제작전투에 전일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애로는 고압시험설비의 어느 한 부분품을 해결하는 문제였다.

그때 공장에서는 고압정전측전기제작에서 중핵적인 시험설비를 마련하면서 이 부분품을 충분히 구입하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수 없었다.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을 떨쳐하며 자체로 부족되는 부분품을 만들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그후 부분품을 해체하고 구조와 동작원리를 터득한 공장의 기술집단은 설계부터 우리 실정에 맞게 혁신적으로 하였다. 한편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제작에 필요한 10여t의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였다.

이렇게 제힘을 믿고 떨쳐나선 이들의 피타는 노력과 해당 단위의 방조밑에 수십개의 부분품이 제작되고 고압정전측전기를 만들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측전기생산전투의 나날에 공장의 로동자들은 기발하게 착상한 전극접이기를 자체로 만들어냄으로써 크기도 작고 성능이 높은 각종 측전기를 제작할수 있게 되였다.

지난해 총정의 200일전투기간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체로 생산한 수십대의 측전기 운영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그 성능을 확증함으로써 우리의 기술과 설비로 송전계통에서 무효전력을 더욱 원만히 보상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제힘을 믿고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속에는 자동력률보상반도 있다.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고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자기 단위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지배인은 자동력률보상반을 공장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낼것을 발기하고 기술자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현장에서 기술자들과 마주앉아 새로운 착상의 실마리도 피워주고 실패가 거듭될 때에는 신심을 북돋아주면서 그들을 성공에로 떠밀어주었다.

일군들의 해박한 지식과 적극적인 방조는 기술자들에게 있어서 불가능을 모르게 한 고무적힘으로 되였다. 때로 고심어린 사색과 노력속에 제작된 설비가 원만히 동작하지 않을 때 기술자들은 국가과학원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집단과의 련계밑에 설비를 더욱 완성해나갔다.

결과 이들은 설계와 제작으로부터 조종프로그람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완성한 자동력률보상반을 끝끝내 만들어냈다.

공장에서는 지금 정전측전기와 자동력률보상반뿐아니라 전력공업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부속품, 자재들을 원만히 생산하여 나라의 전력문제해결에 직극 이바지하고있다.

크지 않은 이 단위에서 이룩된 성과는 제힘을 믿고 완강하게 실천할 때 어느 단위에서나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최 영 조

당의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체육열기로 흥성이고있다.
-선교구역당학교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현 찍음

우 리 기 술 원

단천시 장내협동농장 농산제2작업반 기술원 신문섭동무는 당의 과학농사방침관철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과학농사에 다수확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한 그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사업에 온넋을 쟁그리 바쳐가고있다.

농장적으로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남먼저 받아들이기 위해 포전에서 한밤을 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밤길도 마다하지 않고 수십리길에 헌헌히 나섰다.

그는 작업반원들을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키우기 위해 기술학습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도 응당한 힘을 넣고있다.

당의 과학농사방침관철을 위해 포전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언제나 한모습으로 이악하게 투쟁하고있는 그를 두고 누구나 우리 기술원, 실농군이라고 정답아 부르고있다.

로농통신원 원 기 연

삶의 지향도, 탐구의 목표도 첨단

보건성 치과종합병원 의사 황성혁동무

우리가 보건성 치과종합병원 의사 황성혁동무에 대해 알게 된것은 평산군의 한 녀인이 보내온 편지에서였다.

환자들에 대한 정성이 지극한것은 더 말할것 없고 실력이 매우 높다는것, 그가 받은 특허와 발명증서, 과학기술성과등록증, 창의고안증서들만 하여도 수십개나 된다는 편지의 구절은 우리의 귀재길을 재촉했다. 하여 얼마전 우리는 보건성 치과종합병원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치료예방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보건사업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습니다.》

만나보니 우리의 주인공인 미용외과 의사 황성혁동무는 30대의 새 세대 보건일군이였다.

그에 대한 요란한 소개를 받고 어느 정도 나이지숙한 보건일군일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는 참으로 뜻밖이였다.

그러나 그의 온몸에서 느껴지는 학구적인 태도, 비상한 탐구의 열정만은 생각했던바 그대로였다.

《혹시 가정의 어떤 래력으로부터 보건일군이 된것은 아님니까?》

《아닙니다.》

무척 호기심이 동한 우리의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것으로 말을 시작하였다.

황성혁동무가 미용외과분야에 들어선것은 스스로의 결심에서였다.

곰도 많았고 포부도 컸던 중학시절 길거리에서 가끔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의 밝지 못한 얼굴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이 많았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자기의 얼굴모습을 되찾을수 있을가.

그 의문을 풀기 위해 해당 분야의 사람들을 찾아갔던적도 있었다.

그때 그는 미용외과라는 의학의 한 분야에 대하여, 그 하나하나의 미개척분야를 점령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였다. 그럴수록 그쪽으로 마음이 더욱 쏠리게 되는것을 억제할수 없었다.

이렇게 들어선 길이였다.

의학공부를 시작하던 날에도, 의사생활의 첫발을 내짚던 그날에도 황성혁동무의 가슴속에는 첨단개척이라는 숭고한 사명감이 뿌리깊이 간직되여있었다. 그의 이런 각오와 결심은 지칠줄 모르는 탐구의 열정을 북돋아주는 힘의 원천이였다.

하기에 그는 의사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여 림상실천에 큰 도움을 주는 미용외과수술도감을 만들어내놓았으며 그후 피부조직확장술, 줄기세포-미세지방이식술을 비롯한 첨단수술방법들 그리고 3차원인쇄기를 리용하는 미용성형수술지원체계를 개발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하게 되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완성한 의료기구들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그 나날 못하지 않은 일로 고통을 받던 어느 한 탄광의 청년탄부며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던 구성시의 13살 난 소년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래의 얼굴모습을 되찾아줌으로써 그들의 가슴속에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깊이깊이 새겨주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게만 흘러간것은 아니였다.

미용외과분야의 연구사업은 사람들의 일생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갈마드는 동요로 하여 수술칼을 잡은 손이 떨린적도 있었고 연구사업으로 며칠밤을 꼬박 지새우다가 겹쌓인 피로로 하여 지쳐 쓰러진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에게 힘이 되여준것은 집단이였고 동지들의 믿음이였다.

그는 우리에게 집단을 떠난 치료사업과 첨단연구성과는 생각할수 없다고 재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전 아직도 첨단돌파전의 출발선에 나선데 불과합니다.》

우리의 보건을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 세계적수준의 보건으로 되게 함에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첨단을 향하여 쉬임없이 줄달음치는 황성혁동무.

그와 같은 훌륭한 보건일군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에 의하여 더욱 아름다와질 인민의 모습, 더욱 밝아질 조국의 모습을 그려보는 우리의 귀전에 황성혁동무의 목소리가 의미깊게 울려왔다.

《첨단을 돌파해야 할 우리의 주로에는 시작만 있지 끝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더욱 빛내여가려는 한 보건일군의 삶의 지향이기도 하였다.

본사기자

《려단장동지, 기쁜 소식입니다.》

윤호남이 혼합물을 이기면 삼자루를 놓고 뒤돌아보니 류학민대대장이 환하게 웃으며 서있다.

《정방산금수정샘물이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였답니다. 방금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순식 사이없이 소식거리를 쏟아내는 류학민의 《련발사격》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윤호남은 덥석 그의 어깨를 그러잡았다.

《그게 정말이요?》

뿌옇게 흐려진 윤호남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정방산에서 천연샘물을 찾아낸것이 얼마나 큰 경사이고 명산에서 팔팔 쏟아져나오는 샘줄기가 얼마나 귀중한 조국의 재부로 되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입니다.》

그 시각 윤호남의 눈가에는 정방산에서 샘물을 찾기 위해 발이 닳도록 걷고 또 걸은 하많은 날과 달들, 6년 세월의 고심참담했던 순간순간들이 비껴들고있었다. 정방산의 샘줄기를 자기 손으로 마쳐놓던 지난 4월 21일의 추억이 되살아올라 윤호남은 울렁이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있었다.

* *

이른아침부터 서흥군 양암리에서 샘물탐사를 하느라 점심도 건넌 사람들이 평양—개성고속도로옆 골밭에 모여앉은것은 오후 3시경이였다. 정방산에 샘물공장을 일떠세우는가 못 세우는가 하는 문제를 론의하는것으로 하여 《샘물협의회》는 자못 긴장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일군들과 도탐사관리국의 실무일군들, 도송배전부 지배인, 수질검사를 맡은 도위생방역소 의사…

각이한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앉은 그 자리에 황해북도속도전청년돌격대 려단장 윤호남도 있었다.

정방산에서도 양암리에서도 모든 검사지표를 만족시키는 천연샘물을 찾지 못한것으로 하여 협의회참가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먹장구름처럼 컴컴했다.

《정방산일대는 땅끝임지대여서 물이 우로 솟구치지 못하고 자꾸만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지금까지 정방산에서 오죽이나 품을 들여 샘물을 찾았습니까. 샘줄기가 있다면야 왜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정방산에는 샘물공장을 일떠세울것 같지 못합니다.》

윤호남의 귀에는 그 말들이 들려오지 않았다.

(숲이 무성한 정방산에 샘물이 없다니…)

제 생각에만 옴해있는 그의 무릎을 누군가가 툭 쳤다. 도당위원회의 일군이였다.

《려단장동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 시각 윤호남은 자기의 한마디 대답에 결론이 달려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6년째나 헛물을 켜면서도 정방산에 샘원천이 꼭 있다고, 기어이 정방산의 샘물을 찾겠다고 지금까지 우겨온 윤호남이였다.

정방산에서의 샘물탐사에 지쳤다면 제일먼저 지쳐야 하고 손떨고 나앉는다면 누구보다 먼저 나앉았어야 할 윤호남이다. 이제 그마저 《저도 할수 있는것 다 해보았지만…》라고 말하면 정방산에서의 샘물탐사사업과 도에 일떠세우게 되여있는 샘물공장건설도 표연해진다.

협의회분위기가 팽팽해지게 된것이 샘물탐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때문이며 지금도 모두의 눈빛이 자기의 얼굴에 집중되여있다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였지만 윤호남은 마지막대답을 쉽게 할수가 없었다.

* *

누구도 윤호남에게 정방산에서 샘물을 찾으라고 과업을 준 일은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멋진이호텔을 건설하기 위하여 황해북도속도전청년돌격대가 정방산에 처음으로 배낭을 풀어놓았을 때였다. 정방산에는 물이 몹시 말랐다. 예로부터 물이 바르다는것을 모르는바가 아니였지만 정작 이곳에서 일하며 생활해보니 먹는물이 바른 안라까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정방산을 자주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방산의 물문제때문에 얼마나 마음쓰시였던가.

정방산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이 금강산샘물이며 신덕샘물, 룡악산샘물과 같이 다른 지방의 샘물을 가지고오는것을 볼 때마다 윤호남의 마음은 쓰려났다. 한해두해 흐를수록 그의 이런 심정은 더해만 갔다. 하여 6년전에는 도당위원회에 제기하여 정방산에서 샘물을 찾겠다고 나선 윤호남려단장이였다. 도당위원회에서도 그의 결심을 지지해주고 적극 밀어주었다.

그때로부터 정방산의 어느 골짜기, 어느 기슭인들 훑어보지 않았으랴. 《샘물돌격대》라고 불리울 정도로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흙식일이면 신발창이 닳도록 정방산의 골과 골을 누비였다. 물론 샘물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것은 아니였다. 문제는 발견된 샘물마다 수질이 좋지 못하거나 물량이 적은것이였다.

지난 몇년사이에 샘물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할만큼은 다 수집하고 정방산일대의 지질학적특성에 대하여서도 바닥이 나도록 터득한 윤호남이여서 몇개소에서 찾아낸 샘물이라는것이 땅속으로 스미여 흐르는 비물이나 눈석임물과 같은 게 절수이거나 보잘것없는 카느다란 물줄기라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수질이 좋고 땅속에서 쉬임없이 흘러져나오는 천연샘물을 기어이 찾아야 한다.)

이런 각오밑에 올해초에는 잠도리를 단단히 하고 보다 통이 큰 시도를 하였다. 샘물탐사에 어느 한 기관과 련계하여 천대적인 탐사설비를 동원시킨것이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시추기까지 보내주어 정방산의 지심깊이에서 흐르는 샘물줄기를 탐사하게 하였다.

1월의 흰눈덮인 정방산기슭에는 최광호실장을 비롯한 도속도전청년돌격대 지휘관들과 도탐사관리국 수문지질탐사대 성원들의 발자국이 무수히 찍혀졌다. 하지만 그렇게 애써 찾는 맑고 풍만한 샘줄기는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윽되자 정방산호텔을 건설하고있는 도속도전청년돌격대가 자기 맡은 건설공사나 잘하면 되지 땅속물계도 모르면서 괜히 주제넘는 일을 한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런 속에 양암리의 어느 한 야산기슭에 좋은 샘물원천이 있을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하여 샘물탐사와 샘물공장건설에 련관있는 단위일군들로 루어진 이 일행이 오전내껏 양암리의 산발을 훑었던것이다. 하지만 기대하였던 샘물은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 이 협의회가 자못 심각할수밖에.

* *

노력만 있고 결과가 없는 샘물탐사의 발자취들을 더듬어보는 윤호남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었다. 이상한것은 정방산의 어느 골짜기엔가 꼭 샘물이 있을것만 같은 생각이 그의 머리속에서 좀처럼 떠날줄 모르는것이였다. 하지만 신통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모순된 감정속에서 윤호남의 가슴은 막 터질것만 같았다.

그가 이제 와서 샘물을 찾는 일을 포기한다고 해서 탓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량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53년전에 산에 오면 제일 그리운것이 물이라고, 정방산유원지에서 샘물이 나오는데는 다 찾아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는데 누구든, 언제든 수령님의 유훈을 완벽하게 관철해야 하지 않겠는가. 후대들이여, 이 정방산에는 샘물이 없으니 더는 찾지 마시라고 쓴 비석을 만들어세울만큼 내가 과연 정방산에 샘물이 없다고 보증할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윤호남은 도저히 《포기》라는 말을 입에 올릴수가 없었다.

(어섯해가 모자란다면 한생을 다 바쳐서라도 정방산에서 기어이 샘물을 찾아내리라.)

마침내 윤호남은 보다 자신만만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정방산에서 샘물을 끝까지 찾겠습니다.》

협의회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우리 정방산에서 샘물을 꼭 찾읍시다.》

결심이 더 확고해진듯 한 윤호남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며 도당위원회일군이 한 말이였다.

《우리모두 갑시다. 정방산으로!》

도탐사관리국의 일군들도, 입술만 잘근잘근 씹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수질검사를 맡은 의사도, 도당위원회의 일군들도 함께 길을 떠났다.

* *

윤호남을 비롯한 일행이 금수정골로 오르고있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목란꽃나무가 안겨왔다. 이 꽃나무가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잊지 못해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아주시여 조선의 국화로 빛내여주신 사연깊은 그 나무이다.

(조선의 국화 목란꽃과 더불어 유명한 정방산에 천연샘물까지 있다면 정방산을 그처럼 사랑하신 우리 수령님들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랴. 그리고 이곳을 찾는 인민들은 얼마나 좋아하랴.)

금수정골 막바지에로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윤호남의 뇌리에는 이 골짜기 어디선가 꼭 맑은 샘물이 솟구쳐오를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느덧 포장도로가 끝나고 무성한 숲지대가 앞을 막아섰다. 어기서부터는 골짜기의 경사가 급해지면서 여러개의 산봉우리들이 올려뻗어있다. 부석부석한 락엽을 밟으며 일행이 한 50보쯤 골짜기안으로 더 들어섰을 때였다.

몇번이고 올라와 본 이곳이 윤호남의 눈에 이상하게도 전혀 새롭게 비껴들었다. 여러 산봉우리들이 마주 바라보이는 삼각지점이나 같은 금수정골 막바지의 표한 지세가 눈뿌리를 잡아당기는것이였다.

크고작은 바위들이 나딩구는 물기 한점 없이 바짝 마른 골짜기에서 몇m 떨어져있는 한 평퍼짐한 곳의 나무들은 벌스레 크고 일새도 무성하였으며 우듬지들이 아스라하게 높이 솟아있었다.

이전에 샘물을 찾으러 올라왔다가는 늘 이 자리에서 휴식하군 했다. 한여름에 다른 곳들은 무덥고 습한 공기가 엉켜돌아도 여기만은 별로 시원하고 거뜬한감이 들군 하였었다. 일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가까이 다가가 찬찬히 들여다보니 언제인가 물이 용솟음쳤던 흔적이 분명하였다. 마치 개미가 열성껏 날라다놓은 흙갈기도 하고 어디서 떠밀려온 모래갈기도 한 보드라우면서도 깔끔한 흙을 손으로 배만져보니 감촉이 푸근하고 이상야릇한 느낌을 주는것이였다.

(혹시?)

윤호남은 엉겁결에 말밑을 파헤쳤다. 보드라운 흙을 한벌쯤 들어내고 깊숙이 파고들어가니 물혹물혹 물마루가 하나둘 생겨나면서 그렇게 찾고 또 찾던 샘이 콩콩 솟구쳐나오는것이 아닌가. 물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흙이 씻겨나가며 니바위의 끄트머리가 드러나고 그 짬새에서 샘이 흘러나왔다.

때는 오후 6시경이였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렇게도 애써 찾던 정방산의 샘물이 이렇게 자태를 드러내다니!)

다음날 물시료분석결과가 나왔다.

결과를 듣는 윤호남의 심장은 금시 터질것만 같았다.

맑음도에 있어서나 광물질함량에 있어서 아주 만족할만 한 수치가 나왔던것이다.

지질전문가들은 이것이 정방산일대에 하나밖에 없는 균렬수이며 천연샘물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 *

정방산유원지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드디어 완벽하게 관철한 기쁨을 안고 집행란에 이렇게 새겨넣었다. 《주체106(2017)년 4월 21일 정방산샘물을 찾았음.》이라고.

도당위원회일군들과 황해북도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은 자기 지역에서 수질이 좋은 샘물원천을 찾아 샘물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관철할수 있게 된 환희에 넘쳐 정방산기슭에 샘물공장을 일떠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방산금수정샘물》로 명명된 그 샘물이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여 우리 조국의 국보로까지 되였으니 윤호남을 비롯한 도속도전청년돌격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심정이 어찌 남다르지 않을수 있으랴.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받들어가는 피끓는 심장들에서 뿜어져나온 진하디진한 애국충정과 티없이 순결한 량심의 응결체와도 같은 정방산의 샘물.

이름그대로 귀하고 수정같이 맑은 유명한 천연샘물을 찾은것으로 하여 정방산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와 더불어 명산중의 명산으로 더욱 아름다운 빛을 뿌리게 되였다.

본사기자 리수정

원자재는 하나, 료리는 수백가지

전국미꾸라지료리경연장을 돌아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식료가공기술과 료리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식생활문화를 바로세우고 우리 인민들이 맛있고 영양가높은 음식을 먹게 하여야 합니다.》

단백질, 필수아미노산, 불로화지방산 등이 풍부히 들어있는 미꾸라지는 영양학적가치가 매우 높은 음식감이며 미꾸라지료리는 사람들의 몸보신에 좋은 건강음식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우리는 전국미꾸라지료리경연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경연장소인 평성시에 있는 장수산려관을 찾았다. 미꾸라지를 가지고 몇가지 료리들을 만들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안고 경연장에 들어선 우리는 전시된 수많은 미꾸라지료리들앞에서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찜만 해도 밥반찬으로는 그지없는 미꾸라지호박즙찜, 미꾸라지랭찜, 미꾸라지참쌀완자찜 등이 있었으며 구이만해도 미꾸라지완자꼬치구이, 미꾸라지교수구이, 미꾸라지분지항고추장즙구이 등 그 가지수는 실로 많았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미꾸라지랭가루튀기, 미꾸라지마른튀기, 미꾸라지호박씨튀기 등이며 미꾸라지완자설탕화볶음을 비롯하여 미꾸라지를 갈아 거기에 여러가지 음식감들을 함께 넣어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만든 료리들…

전시된 미꾸라지료리들은 수백가지에 달하였다.

우리와 만난 현영훈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경연에 40여개 단위에서 선발된 많은 료리사들이 참가하였다고 하면서 이것만 놓고보아도 미꾸라지료리기술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꾸라지료리에 대한 해당 단위 일군들의 관심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료리기술에 대한 경험교환이 활발히 진행되는것이 이번 경연에서 주목되는 점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제로 미꾸라지료리들을 보며 탄성을 터뜨리는 참관자들의 모습은 우리 마음을 더욱 흥그럽게 해주었다.

경연장에서 우리는 옥류관의 한 일군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이 어떻게 하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하겠는가 하는데로 옥류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모두의 마음이 지향되였다. 료리기술을 높이는것이 자기 단위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고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것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이들은 지난 시기의 료리경연들에서 얻은 경험을 적극 살리면서도 여러차례에 걸치는 품평회와 주방별, 개인별경연을 자주 조직하였다.

하여 영양학적가치가 높고 독특한 맛을 내며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봉사할수 있는 미꾸라지호박즙과 매운맛미꾸라지수정묵, 미꾸라지닭알찜 등을 특색있게 만들어 전시하게 되였다고 한다.

지정료리경연에 출연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청류관 료리사 장은숙동무의 모습도 퍽 인상적이였다. 몇가지 만찬밥에는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던 미꾸라지를 가지고 다양한 료리들을 만들어낸 비결을 알고싶어하는 참관자들에게 그 가공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미꾸라지료리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경연참가자들의 불같은 열의를 느낄수 있었다.

참가자들 누구나가 경연과정에 우리의 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였으며 미꾸라지료리가공방법을 더욱 발전시키고 봉사활동에 적극 구현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경연장에 차넘치는 드높은 열정과 즐거운 웃음소리에서 우리는 따사로운 사랑의 해발아래 더욱 풍성하고 윤택해질 사회주의생활의 밝은 래일을 환희롭게 그려보았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룡

제힘으로 펼쳐놓은 선경

회창군체신소 택인체신분소에서

회창군 읍에서 10여리정도 가느라면 길옆에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안겨오는 2층짜리 건물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새로 번듯하게 일떠선 회창군체신소 택인체신분소이다.

얼마전 이곳을 찾았던 우리는 건설의 나날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을 깊은 감동속에 들을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석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크지 않아도 귀중한것이며 언제나 아름다운것입니다.》

지난해 2월 회창군체신소 일군들은 다음해까지 한 체신분소를 본보기단위로 훌륭하게 꾸릴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그런데 어느 분소를 선정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일군들속에서 론의가 분분하였다. 그들의 눈앞에 제일먼저 떠오른것은 제대군관인 택인체신분소 분소장 리정수동무의 얼굴이였다.

그 어떤 일감이든지 당정책적요구라면 주저를 모르고 접어드는 기질, 일단 결심이 서면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는 완강한 실천력을 지닌 그였다. 하지만 그때 리정수동무는 오래전부터 앓고있던 병이 도져 치료를 받고있었다. 그런 그에게 어려운 과업을 선뜻 맡길수가 없었다.

하루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리정수동무가 당조직에 찾아와 그 과업을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제기하였다.

《정말 해낼수 있겠소?》

《걸 믿어주십시오.》

《고맙소. 우리도 힘껏 도울테니 한번 본때있게 내밀어봅시다.》

체신소일군들은 해당 부문 일군들과 련계하여 형성안을 만들어 리정수동무에게 보여주었다. 현대 있던 단층건물을 증축하게 되여있는 그 형성안을 리정수동무는 단대하였다. 분소를 먼 앞날을 내다보며 번듯하게 새로 건설하겠다는 그의 결심을 고려하여 형성안이 다시 작성되였다. 10여명의 분소종업원들을 데리고 2층짜리 새 건물을 건설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더우기 하루도 중단없이 당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분소건설을 끝내자면 몇년은 실히 걸려야 했다.

하지만 리정수동무는 건설을 다음해 당창건기념일전으로 기어이 완공할 결심밑에 사업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분소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한편 수십, 수백리길을 오가면서 건설에 필요한 수많은 자재들을 확보해나갔다.

지난해 3월부터 건설전투가 시작되였다. 이들을 돕기 위해 체신소의 일군들은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기초를 파면서 생긴 산더미같은 버력을 치워주고 기초공사를 짧은 기간에 마무리해주었다.

힘은 들었지만 분소종업원들은 자기 일을 마치면 블로크도 찍고 벽체축조도 하면서 신심에 넘쳐 건설을 내밀었다. 층막공사를 할 때에는 새벽까지 전투를 진행하였다. 하여 이들은 몇달동안에 골조공사를 완공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래웠다. 뒤따라 지붕에 색칠관기와를 번듯하게 씌우고 늑창을 설치하였으며 방마다 멋진 출입문들도 달았다. 불리한 겨울철작업조건이였지만 분소에서는 박막을 치고 무동력보이라를 놓아 온도를 보장하면서 공사를 중단없이 밀고나갔다.

올해봄부터는 계획대로 본격적인 내부공사가 시작되였다. 그런데 골조공사때보다 더 많은 품이 들었다. 문화선전실과 사무실들, 작업실들, 락구장과 세목장, 한증칸꾸리기 등에 드는 마감건재만 해도 굉장한 량이였다. 그러자 일부 종업원들은 건물내부를 그럭저럭 적당히 마무리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지금껏 땀흘리며 일떠세운 건물을 힘에 부친다고 대충 꾸려놓는다면 그것이 무슨 주인다운 태도이겠는가.)

분소장은 안해와 토론하고 자기 가족들까지 동원하여 건설에 필요한 수많은 마감건재들을 마련하였다. 이에 감동된 분소의 종업원들은 너도나도 한마음으로 떨쳐나섰다. 이렇게 되여 건물바닥과 문화후생시설마다 하나같이 질좋은 타일이 붙여지고 방마다 멋진 사무용책걸상들이 갖추어지게 되였다.

문화선전실만 보아도 바닥은 목무이나무깔판을 깔고 벽체에는 질좋은 비닐벽지를 발랐다. 조형예술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장식한 천정의 조명등에서 뿜어져나오는 빛으로 하여 그 림새감을 한층 더해주었다.

뿐만아니라 액정텔레비존들과 태양빛전지판, 축전지들과 함께 현대적인 체신설비들도 그 뜬하게 갖추어놓았다.

몇달전에 분소는 마침내 도적인 본보기단위로 일신되게 되였다.

리정수동무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초기계획에는 없었던 사업들을 더 전개하였다. 건물주변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종업원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집짐승우리와 남새온실, 양어장과 버섯재배장도 훌륭히 꾸려놓으니 분소는 그야말로 한폭의 명화처럼 아름다운 선경으로 전변되였다.

제힘으로 멋지게 꾸려놓은 일터에 대한 분소종업원들의 애착은 더욱 강렬해졌으며 자기의 직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안고 모두가 맡은 일을 더 정열적으로 해나갔다.

당의 목소리를 대중속에 제때에 전달하기 위해 일년사시절 눈비를 맞으며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슴을 애국충정으로 더욱 세차게 끓게 한 산골군의 체신분소의 전변의 새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것만 같았다.

어디서나 제힘을 믿고 자기 일터를 선경으로 꾸려나간다면, 그로 하여 이 땅의 모든것이 보다 아름다와진다면 내 나라는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나게 될것이라고.

본사기자 김명훈

군사5종경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방체육을 발전시켜야 사람들을 정신육체적으로 튼튼히 단련시켜 로동과 국방에 믿음직하게 준비시킬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군사활동에 필요한 육체적 및 군사기술적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벌리군 하면 여러가지 형식의 군사훈련은 1950년대부터 점차 경기형식을 띠고 널리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95년 이딸리아에서 진행된 제1차 세계군대종합체육경기대회에서 군사5종경기가 정식 경기종목으로 등록되였다.

군사5종경기의 세부종목에는 사격, 500m장애물극복, 50m장애수영, 수류탄던지기, 산야횡단달리기(남자 8 000m, 녀자 4 000m)가 있다. 군사5종경기는 하루에 한개 세부종목씩 진행하며 5일동안의 점수를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사격경기는 300m대구경보총사격(7, 62㎜)의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12분동안 10발명중사격, 1분동안 10발속도사격을 하여 점수를 종합한다.

50m장애수영경기는 4개의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헤염친 시간에 따라 점수를 준다. 500m장애물극복경기에서는 20개의 장애물을 극복하여야 한다.

수류탄던지기경기는 각이한 거리에 있는 4개의 구간에 수류탄을 4발씩 던져서 얻은 총점수와 최대먼거리던지기점수를 종합한다. 이때 수류탄의 무게는 남자 550g, 녀자 450g이다.

우의 4개의 세부종목이 끝난 후 현재까지의 점수를 종합하여 순위를 정하고 5번째 세부종목인 산야횡단달리기경기에서는 그 순위에 따라 출발시킨다.

산야횡단달리기경기는 경사가 그리 심하지 않은 산야에서 달리는 경기이다.

5일동안의 경기가 끝나면 매 세부종목점수를 종합하여 개인순위를 결정하며 단체별로 개인점수를 종합하여 단체순위를 결정한다.

5일동안의 경기가 끝난 다음 별도로 진행하는 500m장애물극복이어달리기경기가 있다. 이때 500m의 구간에는 5m사다리, 외나무다리, 경사담벽, 2m물홈 등 20개의 장애물이 있다.

남자 500m장애물극복이어달리기경기에서는 4명의 선수들이 이어달리면서 20개의 장애물을 모두 극복해야 하며 녀자 500m장애물극복이어달리기경기에서는 3명의 선수들이 이어달리면서 20개중 16개만 극복하게 되여있다.

우리 나라 선수들은 얼마전에 진행한 제64차 세계군사5종선수권대회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였다.

조선체육대학 교원 인민체육인 명금순

새 기 술 소 식

새형의 진공정련로

자료에 의하면 최근 흑색금속공업부문에서는 진공정련로를 새롭게 개조하여 정련효과를 더욱 높이고있다.

진공정련로는 진공분위기에서 쇠물속의 가스가 잘 빠져나오는 원리로부터 쇠물남비에 진공을 조성해주고 여러가지 야금학적조작을 진행하여 쇠물의 탄소 및 유해가스함량을 훨씬 낮추는 설비이다.

지난 시기에는 주로 쇠물남비와 진공실, 진공배기계통, 진공실밑에 달린 2개의 침적관, 아르곤가스취입계통으로 이루어진 진공정련로를 리용하였다.

새형의 진공정련로에서는 이와 달리 직경이 진공실과 거의 같은 한개의 침적관을 설치함으로써 쇠물을 진공실에까지 빨아올리지 않고도 침적관안에서 처리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침적관밑부분에 있던 아르곤가스취입계통을 쇠물남비바닥의 중심으로부터 한쪽으로 치우쳐 설치함으로써 쇠물이 아르곤가스가 취입되는쪽과 반대쪽의 밀도차에 의하여 침적관안에서 한쪽 절반은 우로, 다른쪽 절반은 아래로 련속 이동하면서 순환할수 있게 하였다.

이 새형의 진공정련로를 단일침적관정련로 또는 혁신적인 랄가스장치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도 부르고있다. 새형의 진공정련로를 받아들이면 강철의 탄소 및 류황, 수소함량을 훨씬 낮출수 있고 침적관의 수명을 높일수 있으며 아르곤가스소비량을 줄일수 있다고 한다.

적극 리용되고있는 불분쇄기

불분쇄기는 분쇄능력이 크고 구조가 간단하며 수리보수가 쉬운 우점을 가지고있다. 불분쇄기에서 분쇄물은 강물의 충격 및 마찰운동에 의하여 보드랍게 분쇄된다.

불분쇄기를 많이 쓰고있는 금속광산의 선광장들에서는 과쇄제통으로부터 5㎜정도로 과쇄한 광석을 받아 0, 074㎜이하로 분쇄하는데 대체로 직경이 크고 길이가 짧은 원통형불분쇄기를 리용하고있다.

세멘트공장들에서는 관형불분쇄기를 리용하여 크링카를 분쇄하고있다. 현재는 관형불분쇄기를 대형화하는 동시에 로라분쇄기와 결합한 혼합분쇄방식을 많이 받아들이고있다.

화력발전소들에서는 비분탄생산에 불분쇄기를 많이 리용하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불분쇄기의 전력소비와 강물 및 안물입재료소비를 줄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문제는 중공축에 정압베아링을 받아들이고 안물입재료로 고무 및 자석안물입판을 만들어 리용하며 여러가지 형태와 재질의 강물을 받아들이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현실에서 은을 내는 치료방법

평안남도고려병원에서

평안남도고려병원에서 말초동맥폐색증의 치료효률을 높일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여 림상실천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말초동맥폐색증은 여러가지 원인들에 의하여 말초동맥이 폐색되는 질병을 말한다. 동상, 흡연, 비만 등을 말초동맥폐색증의 위험인자로 보고있으나 아직 정확히 확증되지는 못하였다.

말초동맥폐색증은 발가락의 저린감, 시린감의 증상이 나타나며 일정한 거리를 걸으면 장딴지근육의 아픔 등이 생긴다. 병이 더 심해지면 발부위에서의 피부온도저하, 안정시 아픔, 근육위축 나아가서 발가락부위에서의 궤양, 괴저 등의 증상들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말초동맥폐색증 1~2기때에는 내과적치료방법을, 3~4기때에는 외과적치료방법을 기본으로 적용하고있다.

백철호기술부원장을 비롯한 이곳 의료일군들은 비약물성치료방법으로 말초동맥폐색증(1~2기)의 치료효률을 높일 목표를 내세우고 오래전부터 고심어린 연구를 거듭하여왔다. 그 과정에 임풀스온침치료기를 창안제작하였다.

임풀스온침치료기를 리용한 치료방법을 도입한 결과 말초동맥폐색증(1~2기)환자들속에서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있으며 수술을 비롯한 외과적치료부담을 덜어주는것으로 하여 좋은 반영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당의 보건정책을 높이 받들어갈 불같은 일념안고 오늘도 이곳 의료일군들은 말초동맥폐색증을 조기에 완치시키기 위한 연구사업과 치료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민족유산을 빛내여주신 뜨거운 애국의 손길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는 고려건국시조왕의 무덤인 왕건왕릉과 왕궁터였던 만월대를 비롯하여 고려시기의 력사문화유적들이 보존되여있어 우리 겨레에게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오늘의 이 자랑찬 현실은 세월의 흐름속에 묻혀버렸던 민족문화유산들을 찾아내여 지켜주시고 더욱 빛을 뿌리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신의 로고와 세심한 령도의 손길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중시하시고 여기에 힘을 넣으시여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온 세상에 빛내여주시였습니다.》

일찌기 천리혜안의 예지로 혁명과 건설에서 민족유산보호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오늘도 우리 겨레는 몸소 개성시를 찾으시여 고려태조 왕건왕릉을 비롯한 력사유적들을 돌아보시며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잊지 못하고있다.

주체81(1992)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개성시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였다. 이른새벽 평양을 출발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성시에 도착하시여 처음으로 찾으신 곳은 고려박물관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고려성균관의 여러 건물들에 전시된 고려시기의 발전력사가 깃든 유적유물들을 보아주시며 성균관을 지금처럼 고려박물관으로 꾸려놓고 이 건물이 고려시기의 최고교육기관이였다고 설명이나 하여서는 의의가 없다고 하시면서 성균관을 계승한 대학을 하나 내올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어 고려의 황궁터였던 만월대와 선죽교 등을 돌아보시며 문화유적들을 잘 보존관리할데 대해 교시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제는 왕건왕릉에 가보자고 하시였다.

개성시의 자그마한 산중턱에 자리잡고있는 왕건왕릉은 고려태조의 무덤으로서 당시까지만 하여도 세월의 흐름속에 퇴색되여 본래의 모습을 잃고있었다. 게다가 릉주변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왕릉으로 들어가는 길도 좁고 험하였다.

일군들로부터 이 사실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왕건왕릉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걸음을 옮기시였다. 왕릉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릉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다가 고려태조의 릉으로서는 너무 협소하다고 하시며 왕릉을 잘 관리하지 못한데 대하여 심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과 력사학자들에게 왕건왕릉을 잘 꾸려야 합니다. 왕건은 우리 나라에 첫 통일국가를 세운 사람인것만큼 그의 릉을 잘 꾸려놓는것이 좋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왕건이 땅속에서 조상들을 불러본다고 후손들을 욕할수 있다고 하시며 왕건왕릉개건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나라에 첫 통일국가를 세운 고려태조 왕건의 공적을 평가하시며 민족문화유산인 왕건왕릉을 잘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설레였다.

그때까지 일군들과 력사학자들은 왕건왕릉을 단순히 하나의 력사유적으로만 여기면서 손상이 가지 않게 보존이나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기에 우리 일군들이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왕건왕릉을 통일국가를 일떠세운 고려태조의 릉으로서의 품격에 맞게 잘 꾸려드릴 세심히 이끌어주신것이였다.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으로 머나먼 길을 잠시의 휴식도 없이 이어가시며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관리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귀중한 교시를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현지지도는 우리 민족사에 절세위인의 불타는 애국헌신으로 아로새겨져있다. 개성시안의 문화유적들을 돌아보시고 평양으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력과 자재, 돌가공문제 등 릉개건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그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왕릉형성안과 돌조각축소모형을 친히 보아주시고 일군들에게 력사유적유물을 개건하거나 복구할 때 반드시 력사주의적원칙을 지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받드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왕건왕릉개건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력사유적이 하루빨리 새 모습을 드러낼수 있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왕건왕릉개건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시며 《고려태조왕건왕릉개건비》라는 친필도 써주시고 왕릉개건식을 의의깊게 하도록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깊은 관심과 발기에 따라 시작되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완공된 왕건왕릉의 개건식이 주체83(1994)년 1월 31일 의의있게 진행되였다.

정녕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시며 찬란히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없는 민족애와 숭고한 덕망속에 력사의 이끼속에 묻혀있던 고려태조 왕건의 업적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그의 릉도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훌륭하게 개건되였다.

왕건왕릉뿐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손길아래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시기의 력사유적보존관리사업과 고려사연구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정녕 도처에서 발굴복원되여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빛내이고있는 고려시기의 유적, 유물들에는 민족의 력사를 그처럼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뜨겁게 어려여있다.

하기에 왕건왕릉을 비롯한 력사유적지들을 찾는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찬란히 빛내여주신 절세의 위인이시라고 끝없이 격찬하고있다.

애국애족의 뜻과 의지를 지니시고 조선민족의 만만년력사와 문화를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엄수련

긴장격화를 노린 고의적인 도발소동

남조선괴뢰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얼마전 괴뢰호전광들은 제주도주변해상에서 미국, 오스트랄리아해군과 함께 《대량살상무기전파차단》의 간판밑에 련합해양차단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한편 괴뢰해병대는 미제침략군 해병대와 함께 백령도와 연평도일대에서 해병대련합항공화력유도훈련을 광란적으로 감행하였다.

결코 무심히 스쳐지날수 없는 군사적광란이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전파》를 막는다는 구실밑에 우리를 해상으로부터 봉쇄하기 위한 국제적인 해양차단훈련을 주도해왔다. 이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빼앗기 위한 날강도적인 침략행위이다.

해상봉쇄가 전시에나 있을수 있는 범죄행위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괴뢰들이 련합해양차단훈련과 관련하여 《북의 핵, 미싸일반입과 반출》을 차단하기 위한 훈련이라느니, 유엔《제재결의》리행을 뒤받침하는 《련합작전수행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이라느니 하고 떠들어댔것도 이 전쟁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문제는 괴뢰들이 국제적인 제재봉쇄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범죄적인 침략책동에 극성을 부리며 참가하고있는 사실이다. 미국은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일대에서 련합해양차단훈련을 련달나게 벌림으로써 이 지역에서 세계제패를 위한 국제적인 련합을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해상봉쇄를 강화하여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런데 괴뢰들은 민족의 리익이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상전의 침략야욕을 부채질하는 어리석은 망동을 부리고있다. 이번에 괴뢰들이 미국,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련합해양차단훈련에 참가한것은 상전의 아시아판나토구축책동에 적극 편승하면서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려는 용납 못할 군사적공모결탁행위이다.

괴뢰호전광들이 미제침략군과 함께 서해열점수역에서 감행한 해병대련합항공화력유도훈련도 우리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

괴뢰들이 미국과 함께 벌린 이 훈련에는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하고있는 악명높은 미3해병기동군의 한 부대가 참가하였다. 《해병대의 눈파귀》로 불리우는 미제침략군의 이 부대는 유사시 해병대상륙부대와 함께 우리측 지역에 침투하여 특정대상들에 대한 항공폭격과 함포사격을 유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이 침략의 책동대와 어울려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은 괴뢰들은 제대별임무를 확인하고 련합화력통제능력과 절차를 숙달하였으며 사용장비들의 호환성까지 점검하였다. 이것은 남조선괴뢰들이 추구하는 침략적목적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괴뢰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백령도와 연평도일대에서 우리의 주요대상들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련합항공화력유도훈련을 벌려놓은것은 첨예한 대치계선의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려는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군사적도발행위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미국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언제 핵전쟁의 불길이 치솟을지 모르는 최악의 긴장상태에 놓여있다.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가 때없이 전쟁폭언을 줴쳐대고 그에 따라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전략자산들이 대대적으로 집결되고있다. 트럼프패거리들의 히스테리적인 전쟁광기로 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괴뢰들이 미국과 함께 북침을 가상한 불장난소동들을 일삼는것이 어떤 파국적인 결과를 빚어내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긴장격화를 부채질하며 전쟁도발책동에 기승을 부리는 괴뢰호전광들이야말로 한시도 살려둘수 없는 평화파괴자, 대국역적의 무리이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괴뢰들이 상전을 등에 업고 불덤벙술덤벙하며 벌려놓고있는 군사적도발소동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다. 우리는 미국의 사타구니에 붙어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괴뢰들의 군사적도발망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다.

심철영

우리 나라 대표

유엔총회 제72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가 최근 유엔총회 제72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안전《유엔안전보장리사회구성에서의 균등한 대표권과 성원국확대, 기타 안전보장리사회관련문제》토의에 참가하여 연설하였다.

그는 현시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문제는 복잡한 현 국제정세의 추이에서 보나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건설의 전지에서 보나 중요하고도 긴박한 문제로 제기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유엔헌장이 규제한 주권평등과 호상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란폭하게 유린되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간섭과 무력침공, 살륙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

기만적인 《인권옹호》와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내정간섭이 감행되고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있으며 인민들은 정치적혼란의 소용돌이속에서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받고있다.

《전파방지》와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국가테로와 제도전복행위가 로골화되고 테로세력들이 세계적판도에서 생겨나고있으며 오늘의 재난적인 피난민사태를 몰아오는 파괴적인 후과가 초래되고있다.

세계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 모든 사태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감투를 뒤집어쓰고 자기의 특권적지위를 세계제패전략의 정치적도구로 악용하고있는 미국에 의하여 산생된것들이다.

조선반도의 경우에도 미국은 조선반도분렬의 장본인, 긴장격화의 장본인, 우리 공화국을 핵무기보유에로 떠민 핵위협공갈의 장본인으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악용하여왔다.

우리 공화국에 사상 최대의 핵위협을 가해온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은 철면피하게도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핵무력강화조치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며 불법비법의 결의 아닌 《결의》들을 조작해왔다.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반세기이상에 걸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허전쟁연습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하며 조선반도의 사태가 오늘의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은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반대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다무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질서를 세울데 대한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안전보장리사회개혁문제가 시대와 현실발전의 절실한 요구라는것을 보여준다.

그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마땅히 말라진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면개혁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밝혔다.

첫째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은 철저히 공정성과 객관성,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향에서 실천되여야 한다.

자기를 유엔헌장과 국제법우에 놓는 특정한 나라의 오만과 독단, 강권과 전횡, 이중기준을 배격하고 주권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안전보장리사회개혁이 진행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특정한 나라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제력되고 정의와 진리가 짓밟히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더이상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플럭불가담 및 발전도상나라들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개혁되여야 한다.

유엔성원국의 과반수를 차지하고있는 120개이상의 플럭불가담 및 발전도상나라들이 안전보장리사회에서 자기의 대표권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것이다.

지금까지의 안전보장리사회개혁관련 정부간 협상을 보면 상임리사국화대문제는 론의되기 시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전해상차이를 좁히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실현전망이 료원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안전보장리사회의 불균형적인 구성을 바로잡을수 있는 당면한 방도는 비상임리사국화대를 선행시키는것이다.

셋째로, 일본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은 추호도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지난 시기 수많은 아시아나라들을 무력으로 침략하고 상상할수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 특히 성노예범죄를 감행한 특등전범국가이다.

이러한 특대형반인륜범죄를 부정하며 군국주의전쟁마차를 또다시 몰아가는 특등전범국가 일본이 신성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노리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그는 끝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조선인민의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다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모의판을 벌려놓은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을 규탄하여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얼마전 미국방장관과 괴뢰국방부 장관이 년례안보협의회라는데서 합동군사연습을 강화하는 문제 등을 론의하였으며 이에 앞서 미국과 괴뢰합동참모본부 의장들이 대조선군사작전계획들을 놓고 쑥덕공론을 한 사실을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남조선괴뢰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써먹으려고 하고있으며 남조선괴뢰들은 상전의 힘을 빌어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고있다.

그러나 전쟁광신자들은 공화국을 절대로 침략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멸적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미국은 조선인민의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다.

사회주의조선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이다.

전쟁광에게 아부한자들을 단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서울에서 1144차 독요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가 행각기간 남조선에 미국산 무기강매와 통상압력을 가한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그들은 트럼프가 《국회》연설에서 우리 민족을 모욕하고 동족대결을 부추기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망언을 한데 대해 《국회》의원들이 박수로 호응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국회》가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는 전쟁광의 반공교육장으로 되였는데도 《국회》의원이라는자들은 이에 대해 항의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남과 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을 리행하며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중의 생존권을 요구하여 투쟁한 광심수들이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현 당국이 광심수들을 석방하고 《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자살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1위

남조선의 《뉴시스》가 10월 31일 남조선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내에서 제일 높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남조선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들어있는 나라들과 지역의 평균자살률보다 2.4배나 높으며 로인자살률은 평균 2.9배에 달하고있다.

특히 리명박역도가 청와대에 들어앉은 때부터 자살률은 해마다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더욱 열기를 띠는 보수적폐청산투쟁

《리명박을 구속하라!》, 《적폐청산 완수하자!》,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리명박역도의 집앞에서 초불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서울의 소리》에 의하면 리명박역도가 집권시기 감행한 범죄사실들이 련이어 드러나 각계층의 보수적폐청산투쟁이 고조되고있는 속에 역도의 구속을 요구하는 초불투쟁이 더욱 열기를 띠고있다.

4일 리명박심판 국민행동본부와 《MB잡자 특공대》가 리명박의 집앞에서 초불집회를 가지고 리명박《정권》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전면재조사와 역도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하였다.

사전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리명박과 함께 그를 비호하는 악의 소굴인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시민들이 초불을 들어 100조원에 달하는 돈을 훔친 리명박을 징벌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잘 먹고 잘살게 해준다.》며 리명박의 집권에 말벗고나선 정치세력은 그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초불을 일제히 추켜들었다.

발언자들은 《MB잡자 특공대》가 결성되여 지금까지 리명박의 집주변에서 역도의 구속을 위한 무기한 단식릉성을 비롯한 투쟁을 벌려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들은 역도의 집앞을 리명박심판운동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명박이가 구속될 때까지 릉성투쟁장소를 떠나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적폐청산을 가로막고있는 야당들을 비난하며 그들은 《국회》를 바꾸는것이 초불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단결하여 쓰레기들을 반드시 청산하자고 호소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며 투쟁분위기를 고조시키였다.

그들은 리명박의 몰골을 풍자적으로 형상한 가면을 쓴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죄사슬로 묶어 끌고가는 의식을 가지며 역도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성토하였다.

초불을 들고 《MB구속》이라는 글자대형을 새긴 그들은 《리명박을 구속하라!》, 《적폐청산 완수하자!》,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행진하였다.

그들은 리명박역도의 구속과 적폐청산을 위해 매일 초불집회를 전개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전교조 법외로조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전교조성원들이 보수《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고있다.

지난 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철회와 교육적폐청산을 요구하여 전교조 위원장이 단식릉성에 진입한데 이어 9일 19명의 중앙집행위원들이 함께 단식릉성투쟁에 돌입하였다.

단체는 이날 청와대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오는 24일 서울과 대구, 광주, 부산 4개 지역에서 법외로조철회와 교원평가제 및 성과급제폐지를 위한 대중적투쟁을 전개할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자들은 청와대와 정보원, 보수단체가 야합하여 전교조죽이기공작을 하였던 증거들이 련이어 발견되고있는데도 《정부》가 법외로조철회를 미루는 까닭을 리해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교원들의 기본권리가 박탈당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교원평가제 및 성과급제는 교원들을 돈으로 차별하는 교권침해, 반교육적인 교단분렬정책이라고 그들은 폭로하였다.

그들은 현 집권자가 《대통령》후보시기에 당선후 전교조의 법외로조철회를 약속하였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보수《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교원들이 단결하여 싸워나갈것이라고 그들은 선언하였다.

리명박과 공범자들의 죄행 규탄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가 4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요시찰명단작성으로 문화예술계를 옭아매고 겁들이려 한 리명박과 공범자들의 죄행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1년전 박근혜《정부》가 감행했던 요시찰명단작성사건이 드러났는데 지금은 그 뿌리가 리명박《정부》부터 시작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고 규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할것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이번 고소, 고발은 사회의 주인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라는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단체는 리명박이 당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요시찰명단을 작성하여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며 탄압하였다고 규탄하고 문화예술인들은 권력에 아부하거나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민심의 심판을 피해보려는 보수야당패거리들에게 경고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1일 부산국민주권련대가 초불민심의 심판을 모면해보려는 보수야당패거리들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1700만 초불의 힘으로 민주주의파괴주범인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반역《정권》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고 강조하였다.

국민들은 《정권》교체이후에도 사회개혁의 과제로서 적폐청산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초불을 들고있다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세월》호참사진상은 폐, 《싸드》배치,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 때남키능민살인, 공안통치 등 박근혜와 그 패당들이 지지른 죄페는 수없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적폐의 핵심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적폐를 대량생산한 죄를 인정하고 초불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세계평화파괴자의 몰골을 드러낸 트럼프의 아시아행각

늙다리전쟁미치광이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최근 아시아행각의 길에 나섰다.

일본과 남조선, 중국 등 우리의 주변을 돌아친 트럼프의 몰골은 세계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로서의 정체를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이고있다.

전쟁미치광이의 대결행각

일본행각을 위해 5일 요꼬다미공군기지에 날아든 트럼프는 전쟁폭언부터 늘어놓았다.

트럼프는 《미국은 하늘과 땅, 바다와 우주를 지배하고있으며 적들에 비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며 《적들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공격한다면 압도적인 무력으로 격퇴할것》이라고 떠벌였다.

우리의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비법으로, 《문명세계와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위협》으로 몰아붙이면서 이 전쟁광은 《전략적인내는 끝났다.》, 《미국은 이러한 위협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점심이다.》, 《공고한 미일동맹에 의거하여 북조선의 위협에 대처할것》이라고 기염을 토하였다.

7일에는 남조선에 도착하여 평택미군기지에 있는 미8군사령부와 룡산미군기지를 싸다니며 무모한 핵전쟁광기를 부렸다.

트럼프는 《북조선의 6차례의 핵시험과 미싸일발사는 세계에 대한 위협이다.》, 《미국은 자신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력설하였다.

현재 조선반도주변에 3척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배비되였다고 하면서 트럼프는 미국이 이것을 사용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위협하였다.

사실상 트럼프는 아시아행각에 맞추어 《로날드 레간》호, 《니미쯔》호, 《시어도 루즈벨트》호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을 조선반도주변수역에 끌어들이고 우리에 대한 위협공갈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

늙다리수전노의 무기장사행각

조선반도주변정세를 최대로 긴장시켜놓고 일본과 남조선을 돌아친 트럼프의 행태는 늙다리전쟁상인, 수전노의 본색도 여실히 드러내놓았다.

트럼프는 일본수상 아베와의 회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수상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하게 되면 미국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될것이며 일본에는 안전을 가져다줄것이다.》고 하면서 로골적으로 일본에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할것을 강박하였다.

트럼프는 남조선을 행각하면서 방위비분담금증액을 요구하며 이것이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고 떠들어댔다.

뿐만아니라 남조선당국자와의 회담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한다.》고 뇌까렸다.

트럼프는 남조선당국이 수십억US$어치의 미국산 첨단무기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며 곧 그와 관련한 협상이 진행될것이라고 떠들면서 미국산 무기수입에 나서도록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였다.

지금 남조선괴뢰군부에서는 스텔스전투기와 정찰기, 미싸일방위체계를 비롯한 미국산 첨단무기수입액이 수십억US$가 아닌 100억US$이상이 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있다.

레로왕초의 자멸행각

지난 9월 유엔총회마당에서 우리 공화국의 절멸이라는 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대여 세상사람들을 아연케 한 트럼프가 이번 행각에서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남조선 현 집권자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북조선의 핵시험과 미싸일발사는 세계에 대한 위협》, 《세계적인 문제인 북조선문제는 세계적인 대응을 요구》, 《모든 나라들은 유엔안보리제재결의를 리행하며 북조선과의 무역을 완전히 차단하여야 할것》이라고 웨쳐댔다.

트럼프는 8일 괴뢰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인권문제》를 걸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그야말로 악랄하게 헐뜯었다.

우리 공화국을 《야만적인 정권》, 《살인적인 정권》으로 몰아붙이면서 트럼프는 《모든 책임있는 국가들이 북조선을 고립시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며 북조선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지원도 거부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로씨야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에 유엔안보리사회의 《제재결의》를 충분히 리행하고 《북조선과의 외교관계급수를 평구며 모든 무역 및 기술교류를 단절할것》을 요구해나섰다.

트럼프는 중국에 가서도 책임있는 모든 당사국들이 《북조선정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금조달과 무역활동을 중지할것》을 주장하였으며 지어 《북조선의 심각한 핵위협으로부터 지역과 세계를 종국적으로 해방할수 있는 힘이 있다.》고 허세를 부렸다.

외신들은 주권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목적실현에 세계를 동원하려는 국가테로왕초 트럼프의 포악무도한 행태에 경악을 표시하면서 수소탄보유국, 세계적인 로케트강국으로 떠오른 북조선을 건드리는것은 곧 자멸을 재촉하는 길이라고 경고하고있다.

일본의 침략무력증강책동

일본이 침략무력증강을 위해 새로운 함선들을 건조, 배비하는데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6일 고베시의 쥬오구에서 해상《자위대》의 최신예잠수함 《쇼류》호를 진수하는 놀음이 벌어졌다.

고성능수중전파탐지기 등을 장비하고 스텔스성능도 보유하고있는 잠수함은 2019년 3월에 취역하게 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71179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